

2026년

4월~6월

안식일 성경 교과

장년부



예언의 본질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 대한 고찰

목 차

1. 예언에 대한 서문.....	5
2. 왕들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기별자.....	10
3. 미래의 제국들이 드러남.....	15
4. 다니엘의 첫 번째 환상.....	20
5. 왕국들의 계승.....	26
6. 환상이 해석됨.....	31
7. 봉인된 책이 다시 펼쳐짐.....	36
8. 밧모섬의 선지자.....	41
9. 용, 여자, 그리고 남은 자손.....	47
10. 짐승과 그의 표.....	52
11. 세 천사들.....	57
12. 마지막 부르심.....	62
13. 예언된 종말.....	67

안식일 성경 교과

매일의 양식인 안식일 성경 교과는 다 른 부가적인 주석을 배제하고 오직 성경과 예언의 신만을 기초로 하였다. 인용문들은 가능한 간결하면서도 직접적인 사상을 전달할 수 있도록 기술하였다.

어떤 경우에 사용된 괄호[]는 내용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 문맥의 전후 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삽입되었다.

아울러 모든 인용문의 페이지는 영문 페이지임을 밝혀 두는 바이다.

편 저: 제칠일 재림교 개혁운동 대총회

발 행: 제칠일 재림교 개혁운동/ 경북 김천시 구성면 남김천대로 2983-23(송죽 2리 32번지)

발행인: 제칠일 재림교 개혁운동 안식일 학교부

인 쇄: 의성사

전 화: 054) 435-1843

팩 스: 054) 434-4521

(농 협) 351-0513-4988-73 (예금주) 사단법인 제칠일 재림교 개혁운동

(우체국) 700377-01-005190 (예금주) 제칠일 재림교 개혁운동

SDA 개혁운동 한국 합회 홈페이지 주소: www.sdarm.or.kr

(상기 주소나 오른쪽 QR코드 스캔을 통해서도 성경교과와 진리의 기둥과 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제칠일재림교개혁운동

서문

성경은 우리를 위한 영감받은 지침서로 기록되고 신성하게 보존되었다. 성경에 담긴 이야기들은 우리 각자의 삶과 우리가 사는 시대에 대한 수많은 교훈을 제시한다. 하나님께서 민족들과 그분의 백성을 통해 역사하신 이 기록은 우리를 격려하시며 그분의 사랑을 확신시켜 준다. 그리고 가장 귀중한 증거인 예수님의 삶과 기별에 대한 기록은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일깨워준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요일 4:19).

성경에서 발견되는 우리 하나님의 매혹적인 측면 중 하나는 그분의 예지력이다. 그분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사 46:10) 내다보실 수 있으시다. 이로 인해 그분께서는 무한하신 능력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롬 8:28) 하실 수 있으시다. 뿐만 아니라, 때때로 그분께서는 그분의 백성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들”(계 1:1)을 계시하시기로 선택하신다. 이는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과 섭리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시며,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음을 증명하는 증거 중 하나이다. 예언이 역사의 기록과 현재 사건들의 전개 속에서 꾸준히 성취된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창작물 이상의 것임을 보여준다.

예언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가 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계 1:3)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된다.

선지자들의 글 중에서도 두 권은 역사의 큰 흐름에 대한 상세하고 체계적인 예언을 담고 있어 두드러진다. 다니엘과 요한은 이 특별한 기별을 전하도록 위임받았으며, 그들의 책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이번 기 안식일 성경 교과에서 핵심 주제이다.

앞으로 3개월 동안 안식일학교 학생들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이야기와 그들이 기록한 예언의 핵심 부분들을 공부하게 된다. 이는 재림의 기별과 과거와 현재의 영적, 정치적 움직임에 이해하는 틀을 마련해 준다.

이번 기에는 두 책의 모든 내용을 다룰 지면이 부족하지만, 학생들은 전체 내용과 성경의 나머지 부분과의 관계 및 연관성을 포함해 전체 내용을 더 깊이 있게 연구하도록 권장한다.

안식일학교 학생과 교사 모두가 이 예언들의 세부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장 좋은 자료 중 하나는 우리아 스미스의 고전적 저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 대한 고찰』이다. 이번 기 동안 이 책을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로 적극 추천한다.

여러분이 이 예언들을 공부하며 축복을 받으시기를 기도한다. 참으로 “때가 가까웠”(계 1:3)기 때문이다.

-세계 대총회 안식일학교부

첫째 안식일 연금

2026년 4월 4일 안식일



이탈리아 선교 본부를 위한 첫째 안식일 연금

지중해 중심부에 위치한 아름다운 나라 이탈리아는 유구한 역사, 비할 데 없는 예술, 정교한 요리, 그리고 숨 막힐 듯 아름다운 자연 경관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세계 최고의 관광지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중요한 산업 및 농업 생산지이기도 하다. 6천만 명이 넘는 인구를 가진 이탈리아는 헌법을 통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 그러나 가톨릭은 여전히 인구의 74%를 차지하는 지배적 종교이며, 비가톨릭 기독교가 9.3%로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최근 이민자 유입으로 이슬람교도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3.6%를 차지하고 있다. 그 뒤로는 다른 소수 종교가 뒤따르고 있으며, 무신론과 불가지론 또한 증가하고 있다.

제칠일 재림교 개혁운동의 기별은 1926년 이탈리아에서 처음으로 전파되었지만, 최초의 개혁운동 단체가 조직된 것은 1939/40년이 되어서였다. 1990년대부터 남미, 포르투갈, 그리고 루마니아에서 온 선교사들의 도착과 함께, 전국 각지에 다른 단체들이 설립되면서 발전했다. 그 이후로 이 기별은 끈기 있게 선포되어 지역 내 여러 곳에 자리 잡았다. 오늘날 우리는 6개 교회, 2개 안교, 그리고 개별 신자들로 구성되어 130명이 넘는 신자들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우리는 나라 북동쪽 끝 트리에스테라는 도시에 위치한 단 하나의 교회 건물만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교인들에게 힘과 영적 성장의 터전이 될 전략적 공간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공간은 선교지의 본부가 될 것이며, 중앙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으로 많은 형제자매들이 연구 모임을 통한 청소년 선교 훈련, 음악 행사, 건강 강습회에 초점을 맞춘 선교 계획, 채식 요리 강좌 등 계획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곳이 이탈리아에서 주님의 사역을 확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으며, 전 세계의 형제자매들과 친구들이 헌금을 통해 이 사업을 아낌없이 후원해 주기를 요청한다.

예수님의 은혜와 여러분의 협력으로 우리는 이 목표를 달성하고, 이 나라의 복음화를 강화하며, 더 많은 영혼들에게 구원의 기별을 전할 것이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풍성한 상급을 주시기를 기도한다!

-이탈리아 선교 본부 형제자매들로부터

예언에 대한 서문

기억절: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샅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벧후 1:19)

참조할 연구교재: 각 시대의 대쟁투, 593~602.

“역사와 예언은 온 땅의 하나님께서 택하신 빛의 전달자들을 통해 세상에 비밀을 계시하신다는 것을 증거한다.” -성경 훈련 학교, 1912.12.1.

1. 무한하신 마음

3월 29일(첫째 날)

가. 하나님만이 무엇을 보실 수 있는가? 사 46:9, 10.

“나는 존재한다(I AM)’는 영원한 존재를 의미한다. 과거, 현재, 미래는 하나님께 동일하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매일 일어나는 일들을 보는 것만큼이나 분명한 통찰력으로 과거 역사의 가장 먼 사건들과 아주 먼 미래를 보신다.” -성경주석[화이트주석] 1권, 1099.

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 지식으로 무엇을 하시는가? 단 2:20~22.

“하나님께서서는 혼란한 세상을 초월하여 좌정해 계신다. 모든 것이 그분의 신성한 통찰에 펼쳐져 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위대하고 평온한 영원으로부터 그분의 섭리로 최선의 것이라고 생각되는 대로 이루어지도록 명령하신다.” -치료 봉사, 417.

“인류 역사의 기록에서 국가의 성장과 제국의 흥망은 마치 인간의 의지와 능력에 좌우되는 것처럼 보인다. 사건의 형성은 그 대부분이 인간의 권력, 야망, 또는 번덕에 의해 결정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휘장이 걸려지고, 우리는 그 무대의 위와 뒤를 보며 그리고 인간의 이해관계와 권력, 그리고 열정의 모든 승부를 통해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대리자들이 묵묵히 또 인내성 있게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다.” -선지자와 왕, 499, 500.

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그분의 뜻을 이루실 준비가 되셨을 때 무엇을 하시는가?
암 3:7; 계 1:1.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다’(암 3:7; 신 29:29).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예언의 말씀들을 경건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연구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따를 것이다.” -시대의 소망, 234.

나.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그러한 기별들을 보내시는가? 요일 3:1; 요 1:12; 골 1:25~28.

“성경은 놀라운 책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난 세기들을 열어 보이는 역사이다. 성경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나간 시대의 사건들에 대한 추측과 우화에 갇혔을 것이다. 성경은 미래를 밝히는 예언이다.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펼쳐 보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영원한 죽음을 피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한다. 세상에 넘쳐나는 모든 책들 중에서, 아무리 귀중한 책이라 할지라도, 성경은 책 중의 책이며, 우리의 연구와 경탄을 받을 만한 책이며, 가장 가치 있는 책이다. 성경은 이 세상의 역사뿐만 아니라 다가올 세상에 대한 묘사도 담고 있다. 우주의 경이로움에 대한 가르침을 담고 있으며,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의 품성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준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계시가 나타나 있다” -영문시조, 1893.1.30.

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지식은 무엇인가? 렘 9:23, 24; 요 17:3; 엡 3:17~19.

“하나님의 말씀에서 인간의 정신은 가장 심오한 사상, 가장 고상한 열망을 요하는 주제를 발견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부조들과 선지자들로 더불어 교체하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하늘의 왕께서 친히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의 대리자요 보증인이 되시고 홀로 흑암의 권세를 대항하여 싸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승리를 거두신 것을 보게 된다. 이러한 주제들을 경건하게 명상하면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순결하게 하고, 고상하게 하며, 동시에 정신을 새로운 힘과 활력을 불어넣어 준다.” -교회증언 5권, 25.

가. 예언을 포함하여 성경을 이해하려면 어떤 도움이 필요한가? 요 16:7~13.

“하나님께서서는 이 세상에서도 진리가 그분의 백성들에게 항상 드러나기를 바라신다. 이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뿐이다. 우리는 말씀을 주신 그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 -교회증언 5권, 703.

“성경은 기도 없이는 결코 연구해서는 안 된다. 성경을 펼치기 전에 성령의 깨우침을 구해야 하며, 그러면 주어질 것이다. 나dana엘이 예수님께 왔을 때, 구주께서는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외치셨다. 나dana엘이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서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요 1:47, 48)고 대답하셨다. 또한 우리가 진리를 알기 위해 그분께 빛을 구한다면, 예수님께서서는 기도의 은밀한 장소에 있는 우리를 보실 것이다. 광명한 세계에서 온 천사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들과 함께할 것이다.” -정로의 계단, 91.

나. 예언을 연구할 때 단순히 자신의 의견을 따르지 않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벰후 1:19~21.

“성경 말씀을 연구할 때, 그대의 선입견과 고정 관념이나 주관은 시작 전에 모두 버려라. 자신의 생각을 정당화하기 위해 성경을 연구한다면 결코 진리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생각들을 문 밖에 두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그대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러 들어가라. 진리를 겸손히 찾는 자가 그리스도의 발 아래 앉아 그분에게서 배울 때, 성경 말씀은 그에게 깨달음을 주신다. 스스로 너무 지혜로워서 성경을 연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는 만일 그대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고자 한다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져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선입견에 비추어 말씀을 읽지 말라. 편견 없는 마음으로 주의 깊게 기도하며 말씀을 연구하라. 읽다가 확신이 생기고 그대가 소중히 여기던 의견이 말씀과 조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도, 말씀을 자신의 의견에 맞추려고 노력하지 말라. 그대의 생각을 말씀에 맞추도록 하라.

과거에 믿었거나 실천했던 것들이 그대의 이해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 마음의 눈을 열고 율법 가운데 있는 놀라운 것들을 찾아보라. 기록된 것을 살펴보고 받을 영원한 반석 위에 세우라.”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260.

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분의 말씀을 주시며, 우리는 어떻게 연구해야 하는가?
사 28:9, 10.

“하나님 말씀의 진리에 대한 증거는 말씀 그 자체에 있다. 성경은 성경을 여는 열쇠이다. 하나님 말씀의 진리의 깊은 의미는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펼쳐진다.” -교회증언 8권, 157.

“성경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성경의 단 한 구절을 읽을지라도 읽고 유익한 사상을 얻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성경의 가장 귀중한 가르침은 이따금 또는 단편적인 연구로는 얻을 수 없다. 성경의 위대한 진리 체계는 성급하거나 부주의한 독자가 분별할 수 있도록 제시되어 있지 않다. 진리의 많은 보화들은 표면 아래 깊이 숨겨져 있으며, 부지런한 연구와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위대한 전체를 구성하는 진리들은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사 28:10) 찾아내어 모아야 한다.

이렇게 찾아내고 함께 모으면, 그것들은 서로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각 복음서는 다른 복음서를 보충하는 것이고, 모든 예언은 다른 예언을 설명하는 것이며, 모든 진리는 다른 진리를 발전시킨 것이다. 유대 율법의 유형들은 복음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난다. 하나님 말씀의 모든 원칙은 그 자리를 차지하고, 모든 사실은 그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완전한 구성이나 설계와 시행에 있어서 그 저자를 증거한다. 그러한 구성은 무한하신 분의 생각 외에는 어떤 마음도 상상하거나 만들어낼 수 없다.” -교육, 123, 124.

나. 성경의 모든 구절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마 4:4, 눅 24:27.

“우리는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는지에 대해 어떤 사람의 증언을 받아들여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스스로 연구해야 한다. ...

성경의 주제들을 서로 관련시켜 연구하고, 성경은 성경과 대조하고 영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비교하는 데 정신을 쏟으면 마음이 넓어질 것이다. ...

주의 깊은 관심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연구하지 않고는 지혜를 얻을 수 없다. 성경의 어떤 부분은 너무나 분명해서 오해할 여지가 없지만, 어떤 부분은 그 뜻이 표면에 드러나지 않아 한눈에 알아볼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성경은 성경과 비교해서 연구해야 한다. 주의 깊게 살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묵상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연구는 풍성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광부가 땅속 깊이 숨겨진 귀금속 광맥을 찾는 것처럼, 숨겨진 보물을 찾듯 하나님의 말씀을 끈기 있게 찾는 사람은 부주의하게 찾는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가장 가치 있는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영감의 말씀은 생명의 샘에서 흘러나오는 시냇물과 같을 것이다.” -정로의 계단, 89~91.

가. 우리의 태도와 선택들은 예언의 의미를 분별하는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단 12:10; 딤후 3:1~8.

“성경을 연구하는 데 임하는 마음가짐이 곁에 있는 조력자의 성격을 결정할 것이다. 빛의 세계에서 온 천사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들과 함께할 것이다. 그러나 경외심이 없이, 자만심에 차서 성경을 펼치고, 편견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다면, 사단이 그대 곁에 있을 것이며, 그는 하나님 말씀의 분명한 진리를 왜곡된 빛으로 비추게 할 것이다.” -목사들에게 보내는 증언, 108.

“사단은 많은 사람들에게 다니엘과 요한 계시록의 예언된 부분을 이해할 수 없다고 믿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이 예언들을 연구하면 특별한 축복이 뒤따를 것이라는 약속은 분명하다.” -선지자와 왕, 547.

나. 진리를 개인적으로 적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설명하라. 계 22:7; 마 7:24~27; 요 7:17.

“온유한 자들은 가르침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고 그들은 기꺼이 가르침을 받으려 하므로 주님께서 인도하신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고자 하는 진실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 구주께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을 ... 알리라’(요 7:17)고 약속하셨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사도 야고보를 통해 이렇게 선언하셨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약 1:5). 그러나 그분의 약속은 오직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자 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졌다.’ -부조와 선지자, 384.

“경건의 신비를 알고자 한다면, 감정이 있든 없든, 느낌이 있든 없든 진리의 분명한 말씀을 따라야 한다. 순종은 원칙에 입각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어떤 경우에서든지 의를 추구해야 한다.” -그리스도인 교육의 기초, 125.

1. 지식의 측면에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존재와 어떻게 구별하시는가?
2.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의 글들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계시하시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3. 하나님의 말씀을 펼칠 때, 어떤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가?
4. 성경 연구에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가?
5.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발견한 것을 기꺼이 적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왕들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기별자

기억절: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단 1:17)

참조할 연구 교재: 선지자와 왕, 479~490.

“다니엘과 그의 동무들의 생애는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고 온 마음을 다해 그분의 목적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위해 그분께서 무엇을 행하실 것인지를 보여주는 실증이다.” - 선지자와 왕, 490.

1. 바벨론의 포로들

4월 5일(첫째 날)

가. 다니엘은 어떻게 바벨론에 가게 되었는가? 단 1:1~7.

나. 왕의 식탁에서 먹는 것에 관한 다니엘의 결정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단 1:8~16.

“왕의 식탁에서 나온 음식의 일부가 우상에게 바쳐졌던 것이므로, 그것을 먹는 사람은 바벨론의 신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으로 간주될 것이었다. 그러한 경의를 표하는 것은 여호와께 대한 충성심 때문에 다니엘과 그의 동무들이 함께 참여할 수 없는 일이었다. ...

그들은 사치와 방탕이 신체적, 정신적, 영적 발달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감히 감수할 용기도 없었다.” - 선지자와 왕, 481, 482.

“다니엘과 그의 동무들은 시험을 받게 되었을 때, 의와 진리의 편에 온전히 섰다. 그들은 변덕스럽게 행동하지 않고 지혜롭게 행동했다. 그들은 과거에 육식이 그들의 식단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앞으로도 육식을 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 포도주 사용이 금지되었으므로, 그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기로 결심했다.” - 하늘에서, 261.

다. 열흘간의 채식 실험과 왕의 시험을 설명하라. 다니엘 1:17~21.

2. 불로 시험함

4월 6일(둘째 날)

가. 죽음의 위협 속에서 히브리인들은 둘째 계명에 대한 충실성과 관련하여 어떤 시험을 받았는가? 단 3:1~15.

“모든 사람이 인간의 권세를 상징하는 우상에게 무릎을 꿇은 것은 아니었다. 경배하는 무리 가운데 세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은 하늘의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했다. 그들의 하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님이심으로, 그들은 다른 어떤 것에도 절하지 않았다.” -선지자와 왕, 506.

나. 그들은 어떻게 믿음과 순종을 유지할 수 있었는가? 단 3:16~18; 사 43:1, 2.

“왕의 위협은 헛수고였다. 그는 사람들을 우주의 통치자에 대한 충성심을 돌이키게 할 수 없었다. 그들은 조상들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수치와 재난과 죽음을 초래하게 되며,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며 모든 참된 번영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배웠다. 그들은 풀무불을 바라보며 침착하게 말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께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만일 이것이 당신의 결정이라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 시리이다’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심으로써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선언했을 때 믿음이 더욱 굳건해졌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에서 우러나오는 승리의 확신으로 그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덧붙였다.” -선지자와 왕, 507, 508.

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구원을 통해 어떻게 영광을 받으셨는가? 단 3:19, 20, 24~28.

“왕은 자리에서 자기를 대적한 자들이 완전히 멸망되는 것을 보기를 기대하면서 지켜보았다. 그러나 그의 승리감은 갑자기 바뀌었다. ... 불 가운데 있는 네 번째 모습에서 왕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이제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위대함과 위엄을 잊은 채 보좌에서 내려왔다. ...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많은 군중들 앞에 나아와 그들이 아무 해도 받지 않았음을 보였다. ... 것처럼 장엄하게 세워져 있던 거대한 금 신상은 잊어버리고 살아 계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은 두려워 떨었다.” -선지자와 왕, 509, 510.

가.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단 4:4~7.

“그처럼 야심 많고 교만한 마음을 가진 성공적인 군주가 진정한 위대함으로 이끄는 유일한 겸손의 길에서 벗어나고 싶은 유혹을 받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사 왕에게 또 다른 꿈을 주셨으니, 이는 그에게 닥칠 위험과 파멸을 위해 놓인 함정을 경고하시기 위함이었다.” - 선지자와 왕, 515.

나. 다니엘이 마침내 꿈을 해석하도록 부름을 받았을 때, 그는 왕에게 어떤 조언을 했는가? 단 4:20~27.

“다니엘에게 그 꿈의 의미는 분명했고, 그 의미하는 바는 그를 놀라게 하였다. …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의 교만과 오만함 때문에 곧 닥칠 형벌을 그에게 계시해 주어야 할 엄숙한 의무를 자신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 선지자와 왕, 517.

“그 꿈을 충실하게 해석한 다니엘은 교만한 군주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옳은 일을 행함으로써 임박한 재앙을 피할 것을 탄원하였다.” - 선지자와 왕, 518.

다. 힘들고 겸손한 경험을 통해 배워야만 했던 왕은 어떻게 다니엘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는가? 단 4:34~37.

“7년 동안 느부갓네살은 모든 신하들에게 놀라움의 대상이 되었으며, 7년 동안 그는 온 세상 앞에 겸비하게 되었다. 그러자 그의 이성이 회복되었고, 겸손하게 하늘의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자신을 징벌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공개적인 선언을 통해 자신의 죄와 하나님의 크신 자비로 회복된 것을 인정하였다. …

한때 교만했던 군주는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폭압적이고 오만한 통치자였던 그는 지혜롭고 자비로운 왕이 되었다. 하늘의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독했던 그는 이제 지극히 높으신 분의 권능을 인정하고 여호와에 대한 경외심과 신하들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 열렬히 노력했다. …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왕국이 그분을 찬양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제 성취되었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자비와 선하심과 권위를 인정한 공개적인 선언은 성경에 기록된 그의 생애의 마지막 행위였다.” - 선지자와 왕, 520, 521.

가. 느부갓네살의 후손인 벨사살이 하늘의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갑자기 멈추게 한 극적인 사건은 무엇이었는가? 단 5:1~6.

“젊은 시절에 왕권을 이양받게 된 벨사살은 자신의 권력을 자랑하며 하늘의 하나님을 대적하여 그의 마음을 높였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해야 할 자신의 책임을 깨달을 수 있는 많은 기회가 그에게 있었다. 그는 그의 조부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인간 사회에서 추방되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고, 느부갓네살의 개종과 기적적인 회복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벨사살은 쾌락에 대한 사랑과 자기 영광에 빠져 결코 잊지 말았어야 할 교훈을 잊어버렸다.” -선지자와 왕, 522, 523.

나. 다니엘은 어떻게 다시 이방 왕에게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게 되었는가? 단 5:8~16.

“선지자는 먼저 벨사살에게 그가 익히 알고 있었지만, 그를 구원할 수 있었던 겸손의 교훈을 깨닫게 하지 못했던 일들을 상기시켰다. 그는 느부갓네살의 범죄와 타락,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처분들, 곧 그에게 주어진 권세와 영광, 그의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그 후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권능과 자비를 인정한 것에 대해 말한 후에 그는 담대하고 단호한 어조로 벨사살의 큰 악행을 견책하였다.” -선지자와 왕, 529.

다. 다니엘의 해석은 그날 밤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단 5:17, 25~31.

“아직도 연회장에서 운명지워진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왕은 사자로부터 자신의 계략에 그토록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적에게 ‘그 성읍 사방이 함락되었으며 ... 군사들이 겁에 질렸더이다’(렘 51:31, 32)는 보고를 들었다. 왕과 그 귀인들이 여호와와 거룩한 그릇으로 술을 마시고 은 금으로 만든 저희 신들을 찬양하는 바로 그때, 메대와 바사의 군대는 유프라테 강의 제방을 허물고 무방비 상태의 도시 중심부로 진군하고 있었다. 이제 고레스의 군대는 왕궁의 성벽 아래에 진을 치고 있었고 도시는 ‘황충 같이’(14절) 적군으로 가득 찼으며, 그들의 승리의 함성은 놀란 주정꾼들의 절망적인 함성 소리 위로 울려 퍼졌다.” -선지자와 왕, 531.

가. 다니엘이 하나님께 충실했음에도 박해를 받은 이유는 무엇인가? 단 6:1~5.

“다니엘에게 주어진 영예는 왕국 고관들의 질투를 불러일으켰고, 그들은 그를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 했다. … 다니엘의 흠 잡을 데 없는 행실은 그의 원수들의 질투를 더욱 자극했다. …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은 서로 의논하여 선지자를 멸망시키려는 계락을 꾸몄다.” -선지자와 왕, 539, 540.

나. 다니엘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단 6:11~17.

“그는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충실함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잘 알고 있었지만, 그의 정신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를 파멸시키려는 자들 앞에서 그는 하늘과의 연결이 끊어진 것처럼 보이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왕이 명령할 권리가 있는 모든 경우에 다니엘은 순종할 것이었지만, 그러나 왕이나 그의 칙령도 그를 만왕의 왕께 대한 충성에서 떠나게 할 수 없었다.” -선지자와 왕, 542.

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종을 통해 어떻게 또다시 영광을 받으셨는가? 단 6:19~23, 27.

“하나님께서서는 다니엘의 원수들이 그를 사자 굴에 던지는 것을 막지 않으셨다. 악한 천사들과 악인들이 그들의 목적을 이루도록 허락하셨으나, 이는 그분의 종의 구원을 더욱 돋보이게 하시고, 진리와 의의 원수들을 더욱 완벽하게 패배시키시기 위하심이었다. 시편 기자는 ‘진실로 사람의 노는 장차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시 76:10)라고 증언하였다. 정책보다는 의를 따르기로 선택한 이 한 사람의 용기를 통해 사단은 패배하고 하나님의 성호는 높임을 받으시고 존귀하게 되실 것이었다.” -선지자와 왕, 543, 544.

1. 오늘날 우리는 네명의 히브리인의 현명한 선택을 어떻게 본받을 수 있는가?
2. 시련을 겪는 것이 어떻게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문을 열어 줄 수 있는가?
3. 느부갓네살 왕은 어떤 교훈을 얻어 개종하게 되었는가?
4. 오늘날의 지도자들은 벨사살이 바벨론에서 보낸 마지막 밤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5. 다니엘의 이야기는 박해받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떻게 격려가 될 수 있는가?

미래의 제국들이 드러남

기억절: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단 2:21)

참조할 연구 교재: 선지자와 왕, 491~502.

“국가의 힘은 개인의 힘과 마찬가지로, 그들을 무적으로 보이게 하는 기회나 시설에 달린 것이 아니며, 또한 그들이 자랑하는 강대함에서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려는 성실성에 의하여 측정된다.” -선지자와 왕, 502.

1. 인상적인 꿈

4월 12일(첫째 날)

가. 느부갓네살 왕은 불안한 꿈에서 깨어난 후 무엇을 명령했는가? 단 2:1, 2.

나. 왕의 모사들은 그의 특이한 요청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단 2:3~7.

“왕은 만약 그들이 참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면 꿈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을 알았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섭리로 느부갓네살에게 이 꿈을 주셨고, 바벨론 박사들의 허식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 꿈의 자세한 내용은 잊혀지게 하셨으나 그의 마음에 두려운 인상을 남겨두셨다.” -성화된 생애, 34.

다. 영계와 내세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벨론 박사들은 무엇을 인정했는가? 단 2:8~11.

“실패의 결과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찬 박수들은 왕에게 그의 요구가 부당하며 그의 시험은 그 누구에게도 요구된 적이 없는 것임을 보여주려고 노력했다.” -선지자와 왕, 492.

가. 왕은 박사들이 왕의 꿈을 밝히 해석하지 못하자 어떤 반응을 보였으며, 다니엘은 어떻게 관여하게 되었는가? 단 2:12~16.

“왕의 명령을 시행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던 관리들이 찾는 사람들 중에는 다니엘과 그의 동무들도 있었다. 명령에 따라 그들도 죽임을 당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시위대장 아리옥에게 묻기를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뇨’라고 하였다. 아리옥은 왕이 그 놀라운 꿈으로 인하여 당혹스러워하며 지금까지 전적으로 신뢰하던 사람들에게서 도움을 얻지 못한 이야기를 다니엘에게 해주었다. 이 말을 들은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가 자신의 하나님께서 꿈과 그 해석을 보여 주시도록 탄원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달라고 간청했다.

왕은 이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에 돌아가서 그 동무인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에게 그 일을 고하’였다. 그들은 함께 빛과 지식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였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자리에 있게 하였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업을 행하고 있으며 맡은 의무를 다하고 있다는 확신 속에서 그들의 믿음은 굳건하였다.” -선지자와 왕, 493.

나. 다니엘과 그의 동무들이 이 상황에서 기도한 방식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단 2:17~23.

“당혹스럽고 위험한 시기에 그들[다니엘과 그의 동무들]은 항상 [하나님께]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구했으며, 그분께서는 언제나 즉각적인 도움을 주셨다. 이제 그들은 참회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 번 이 세상의 재판장께 자신을 맡기며,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이 때에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그분께 간구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탄원은 헛되지 않았다. 그들이 영화롭게 했던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주님의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고, 다니엘에게는 ‘밤의 이상으로’ 왕의 꿈과 그 뜻을 나타내셨다.” -선지자와 왕, 493, 494.

“[네 명의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구한 것이 헛되지 않았다. 이에 다니엘은 동무들을 불러 모아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렸으며, 그들은 찬양과 감사의 제물을 드렸는데, 이는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실 만한 것이었다. [단 2:20~22 인용] 다니엘과 그의 동무들은 찬양 모임을 가졌고, 온 하늘이 그들과 함께 감사에 동참하였다.” -청년지도자, 1894.11.22.

3. 특이한 신상

4월 14일(셋째 날)

가.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꿈 해석에 관해 어떻게 말했는가? 단 2:24~30.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의 군주 앞에서 평온하고 침착한 유대인 포로를 보라. 그는 침대에서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모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높였다. 왕의 ‘내가 본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라는 걱정스러운 질문에 다니엘은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며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라고 대답하였다.” -선지자와 왕, 494~497.

“유대인 포로가 된 그는 해 아래 가장 강력한 제국의 군주 앞에 섰다. 느부갓네살은 부와 영광에도 불구하고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지만, 젊은 유배자는 하나님 안에서 평온하고 행복해 보였다. 바로 그때야말로 다니엘이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선함과 뛰어난 지혜를 드러낼 기회였다. 그러나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자신에 대한 모든 영광을 사양하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었다.” -청년지도자, 1903.9.1.

나. 왕이 꿈에서 본 형상을 묘사하라. 단 2:31~33.

“모든 조목이 자세히 재현되는 것을 엄숙하고 주의를 기울여 듣고 있던 왕은 이것이 자신이 그토록 알고자 번민하던 꿈임을 알아차렸다. 그는 그 해석을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만왕의 왕께서는 바벨론 군주에게 위대한 진리를 전하시고자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세상의 왕국들을 다스리시는 권능, 곧 왕들을 세우시고 폐하시는 권능을 가지셨음을 나타내 보이시고자 하셨다. 느부갓네살의 마음은 가능하다면 하늘에 대한 자신의 책임감으로 깨달아야 하였다. 세상 끝날까지 이르는 미래의 사건들이 그의 앞에 공개되어야 하였다.” -선지자와 왕, 498.

다. 왕이 그 형상을 바라볼 때 형상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단 2:34, 35.

가. 금으로 된 머리는 무엇을 의미했는가? 단 2:36~38.

“느부갓네살 왕 치하에서 바벨론은 지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왕국이었다. 그 부와 영광은 영감으로 희미하게 묘사되었다.” -청년지도자, 1903.9.29.

나. 다음 금속들은 어떤 제국들을 상징했는가? 단 2:39, 40.

“예언은 세계 대제국들, 곧 바벨론, 메대 바사, 헬라, 로마의 흥망성쇠와 발전을 추적해왔다.” -선지자와 왕, 535.

“다니엘은 ... 느부갓네살에게 그의 왕국이 폐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 그의 위대함과 권세는 그 날을 맞이할 것이며, 두 번째 왕국이 일어날 것이다. 이 왕국 역시 유일하신 통치자,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높일 것인지에 대한 시험의 시기를 겪을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영광은 사라지고 세 번째 왕국이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 이 왕국도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철처럼 강한 네 번째 왕국이 세상의 나라들을 정복할 것이다. 예언서에 기록되고 역사의 기록에 남아 있는 이러한 무한하신 분의 예언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일들을 통치하시는 권능자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 주어졌다. 그분께서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왕을 폐하시고 세우시며, 당신의 목적을 이루신다.” -청년지도자, 1903.9.29.

“바벨론은 번영하던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번영의 영광을 인간의 업적에 돌렸기 때문에 멸망했다.

메대 바사 왕국은 하늘의 진노를 받았으니, 이 나라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짓밟혔기 때문이다. 여호와에 대한 경외심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지 못했다. 메대 바사에는 사악함과 신성모독과 그리고 부패가 만연하였다.

그 뒤를 이은 왕국들은 더욱 저열하고 부패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저버렸기 때문에 쇠퇴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므로 도덕적 가치의 척도에서 점점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청년지도자, 1903.9.22.

다. 발과 발가락으로 상징된 왕국들은 어떻게 독특했는가? 단 2:41~43.

“느부갓네살의 신상에서 우리의 위치는 발가락으로 상징되며, 분열된 상태이며, 부서지기 쉬운 재료로 이루어져 서로 연합하지 못할 것이다.” -교회증언 1권, 361.

5. 영원히 서게 될 하나님의 나라

4월 16일(다섯째 날)

가. 어떤 나라가 세상 강대국들의 체제 모두를 종식 시킬 것인가? 단 2:44, 45.

“느부갓네살에게 세상의 종말에 이르기까지 일어날 사건들을 큰 신상의 꿈을 통해 미리 보여 주신 것은 그가 세상 역사에서 자신이 담당해야 할 역할과 그의 나라가 하늘나라와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지 이해하도록 하시기 위해 주어졌다. 그는 꿈의 해석을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것에 대해 분명한 가르침을 받았다.” -선지자와 왕, 503.

나.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언제 시작될 것인가? 요 18:36; 마 25:31~34; 26:64; 계 6:15~17.

“우리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그분의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기를 기다리고 있다. … 예언은 하나님의 큰 날이 바로 우리 앞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그 날은 신속히 다가오고 있다.” -교회증언 1권, 360, 361.

다. 왕은 다니엘이 꿈을 성공적으로 풀어주자 어떻게 반응했는가? 단 2:46~49.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하자 왕은 그와 그의 동료들에게 명예와 존귀를 부여했다. … 다니엘의 세 동무는 그 땅의 모사와 재판관과 총리로 임명 되었다. 이들은 교만해지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 위에 계시며, 그분의 나라가 세상의 모든 나라들 위에 높이 찬양받으시는 것을 보고 기뻐했다.” -청년지도자, 1903.9.8.

복습과 생각할 문제

일몰시각 19:09

4월 17일(여섯째 날)

1.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신뢰하던 박사들에 대해 어떤 것을 알게 되었는가?
2. 다니엘의 감사 기도는 기록되었지만 간구하는 기도는 기록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3.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성을 지녔는가?
4. 변화하는 금속으로 상징되는 왕국들의 특징을 설명하라.
5. 꿈에서 그 돌에 대한 부분은 언제 성취되는가?

다니엘의 첫 번째 환상

기억절: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성도들이 때가 이르매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단 7:21, 22)

참조할 연구 교재: 각 시대의 대쟁투, 479~491; 초기문집, 54~56.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이 가까워짐에 따라, 다니엘이 기록한 예언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시대와 관련이 있으므로 우리의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선지자와 왕, 547.

1. 네 바람과 네 짐승

4월 19일(첫째 날)

가. 다니엘은 언제 첫 번째 예언적 환상을 받았으며, 어떻게 반응했는가? 단 7:1, 15, 16[상단].

“바벨론이 함락되기 직전, 다니엘이 이 예언들을 묵상하며 그 때를 알게 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을 때, 왕국들의 흥망에 관한 일련의 계시가 그에게 주어졌다. 다니엘서 7장에 기록된 첫 번째 환상과 함께 해석이 주어졌으나, 선지자에게 모든 것이 명확하게 이해된 것은 아니었다.” -선지자와 왕, 553.

나. 보여진 자연 요소들은 무엇을 상징했는가? 단 7:2; 계 17:15; 렘 25:31~33.

다. 천사는 일어난 네 큰 짐승의 의미를 어떻게 설명했는가? 단 7:3, 16[하단], 17.

“세계를 지배한 강국들은 ... 선지자 다니엘에게 맹수들로 나타났다.” -각 시대의 대쟁투, 439, 440.

가. 네 짐승 중 첫째 짐승은 무엇이었으며, 그것은 어떤 제국을 상징했는가? 단 7:4; 렘 50:17; 합 1:6~8.

“[바벨론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의 때가 이르렀을 때, 가장 뛰어난 지성을 가진 사람들이 다스리는 이 교만하고 권세있던 나라는 무너지고 산산이 조각났으며 무력해졌다.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셨다. 바벨론의 저명한 정치가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의존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모든 존귀와 영광을 스스로 창조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시들어 버리는 풀과 사라져 버리는 풀의 꽃과 같았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만이 영원히 지속된다.” -청년지도자, 1903.9.29.

나. 둘째 짐승은 어떻게 묘사되었으며, 그것은 어떤 제국을 상징했는가? 단 7:5.

“행동 무대에 등장했던 모든 나라들은 지상에서 각자의 자리를 차지하도록 허락받았으나, 이는 그들이 ‘감찰자’시요 ‘거룩하신 자’이신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할 것인지를 보이기 위함이었다. 예언은 바벨론, 메대 바사, 헬라, 로마와 같은 세계의 대제국들의 흥망성쇠를 묘사해 왔다. 이 각 나라들도 그보다 약했던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역사는 반복되었다. 각 나라는 시험의 시기를 겪었고, 모두 실패했으며, 영광이 쇠퇴하였고, 권력은 사라졌으며, 그 자리를 다른 나라가 차지하였다.

나라들이 하나님의 원칙을 배척하고 그 배척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초래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통치 목적이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통하여 역사하고 계심이 여전히 분명하게 드러났다.” -교육, 177.

다. 헬라 제국을 상징하는 세 번째 짐승의 특징은 무엇이었는가? 단 7:6.

“만일 이 여러 나라들이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품었더라면, 지혜와 권능을 받았을 것이며, 그것은 그들을 하나로 결속시키고 강하게 유지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 왕국의 통치자들은 괴로움과 혼란에 빠졌을 때에만 하나님을 그들의 힘으로 삼았다. ... 그들은 하늘의 빛으로 마음이 밝혀진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에 대한 해명을 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청년지도자, 1903.9.29.

가. 네 번째 짐승을 자연적 용어로 묘사하기 그토록 어려웠던 이유는 무엇인가? 단 7:7.

“성령께서는 세상 나라들을 사나운 맹수들로 표상하셨는데,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요 1:29)으로 나타내셨다.

그분의 통치 계획에는 양심을 강요하기 위해 야만적인 폭력을 사용하는 일이 없다.” -실물교훈, 77.

“십자가는 로마의 권력과 관련이 있었다. 그것은 가장 잔혹하고 굴욕적인 형태의 사형 집행 도구였다. 가장 저급한 죄수들조차도 처형장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야 했으며, 그리고 종종 십자가가 그들의 어깨에 메어지려고 할 때 그들은 필사적으로 저항하다가 결국 제압당하고 결국 고문 도구가 그들에게 메워지곤 했다.” -시대의 소망, 416, 417.

나. 넷째 짐승의 뿔 사이에는 무엇이 보였는가? 단 7:8.

“6세기에 교황권은 확고히 확립되었다. 그의 권좌는 로마에 위치하게 되었고, 로마 감독은 온 교회의 머리가 된다고 공포되었다. 이교는 교황권에 자리를 내주었다. 용은 짐승에게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계 13:2)를 주었다. 이리하여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1260년간의 교황권의 박해가 시작되었다(단 7:25; 계 13:5~7).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진실함을 버리고 교황의 의식과 예배를 받아들이든지, 지하 감옥에서 목숨을 잃거나 고문대, 화형대, 또는 사형 집행인의 도끼에 죽임을 당하거나 그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다. 이제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 주어 너희 중의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눅 21:16, 17)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 충성된 자들에게 이전 어느 때보다 더 맹렬한 박해가 시작되었고, 세상은 거대한 전쟁터가 되었다. 수백 년 동안 그리스도교회는 은둔과 궁벽한 곳에서 피난처를 찾았다. 선지자는 이 일에 대하여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천이백육십 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계 12:6)고 예언하고 있다.” -각 시대의 대쟁투, 54, 55.

다. 다니엘은 환상을 본 후 무엇을 알고 싶어 했는가? 단 7:19, 20.

가. 천사는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무서운 넷째 짐승에 대해 무엇이라고 설명했는가? 단 7:23.

나. 작은 별에 관해 어떤 사실이 밝혀졌는가? 단 7:24.

“거대한 로마 제국은 무너졌고, 그 폐허에서 강력한 세력인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일어났다. 이 교회는 자신의 무오성과 세습적 종교를 자랑한다. 그러나 이 종교는 불법의 비밀을 아는 모든 사람에게 공포의 대상이다. 이 교회의 사제들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청년지도자, 1903.9.22.

다. 작은 별 세력의 분노는 누구에게 향할 것인가? 단 7:21, 25.

“로마 교회가 권세를 잡게 되므로 암흑시대의 시작을 알렸다. 교회의 권세가 커져감에 따라 암흑은 더욱 깊어졌다. 신앙은 참된 기초이신 그리스도에게서 로마 교황에게로 옮겨졌다. 죄 사함과 영원한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신뢰하는 대신, 사람들은 교황과 그가 권한을 위임한 신부나 주교들에게 구하게 되었다. 그들은 교황이 세상에 있는 중보자이며, 그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며, 더 나아가 교황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치에서 있으므로 그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그러므로 교황의 요구에서 벗어나는 것만으로도 범죄자들의 몸과 영혼에 가장 가혹한 형벌을 내리기에 충분한 이유가 되었다. 이로써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떠나 오류를 범하고, 실수하고, 잔인한 사람들에게로, 더 나아가 그들을 통해 권세를 행사하는 어둠의 왕자에게로 향하게 되었다. 죄는 거룩함이라는 가면을 쓰고 위장되었다. 성경이 금지당하고, 인간이 자신을 지극히 높게 될 때, 우리는 오직 거짓과 속임과 그리고 타락시키는 불의만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 인간의 법과 전통이 높임을 받음에 따라,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함으로써 초래되는 부패가 명백히 드러났다.

이 때는 그리스도의 교회에 위기의 시대였다. 충성된 기수들은 참으로 드물었다. 비록 진리가 증인 없이 버려진 것은 아니었지만, 때때로 오류와 미신이 완전히 편만하고 참된 종교가 지상에서 사라질 것처럼 보였다. 복음은 잊혀졌지만, 종교의 형식들은 더욱 늘어났고 사람들은 가혹한 요구로 인해 고통을 받았다.” -각 시대의 대쟁투, 55.

가. 작은 뿔의 세력은 어떻게 종식될 것인가? 단 7:26.

“[요한계시록 13:5의] 마흔두 달은 다니엘 7장의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즉 3년 반 또는 1260일과 같다. 이 기간 동안 교황권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했다. 이 기간은 … 법왕권이 최상권을 잡은 서기 538년에 시작되어 1798년에 끝났다. 당시 교황은 프랑스 군대에 포로로 잡혔고, 교황권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으며,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라는 예언이 성취되었다.” -각 시대의 대쟁투, 439.

나. 심판의 자리는 어떻게 묘사되었는가? 단 7:9, 10, 13.

“여기에 묘사된 그리스도의 오심은 이 세상에 재림하심이 아니다. 그분께서는 중보자로서의 그분의 사역이 끝날 때 그분에게 주어질 나라와 영광과 권세를 받으시기 위하여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신다.” -각 시대의 대쟁투, 480.

다. 심판의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단 7:11, 14, 18, 22, 26, 27.

“위대한 구속 계획은 세상을 완전히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회복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모든 것이 회복된다. 사람뿐만 아니라 땅도 구속함을 받아 순종하는 자들의 영원한 거처가 된다. 6천 년 동안 사단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 투쟁해 왔다. 이제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신 본래 목적이 성취되었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단 7:18).” -부조와 선지자, 342.

복습과 생각할 문제

일몰시각 19:15

4월 24일(여섯째 날)

1. 다니엘이 본 바다에서 올라오는 네 짐승을 묘사하라.
2. 짐승들이 상징하는 제국들의 이름과 그 특징들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설명하라.
3. 작은 뿔 권세가 다른 권세들과 다른 점은 무엇이었는가?
4. 작은 뿔 권세의 “큰” 말은 무엇이었는가?
5. 심판은 누구에게, 그리고 언제 땅의 통치권을 부여할 것인가?

첫째 안식일 연금

2026년 5월 2일 안식일



세계 선교를 위한 첫째 안식일 연금

제 24차 대총회 대표자 회의에서는 최근 개척된 많은 새로운 선교지들의 대표자들이 참석하였다. 우리는 현재 진리를 위한 이러한 진전에 대해 진심으로 기뻐하며,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하여질 것이므로 이러한 선교 단체들이 더욱 많이 개척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새로운 지역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이 놀라운 사업에 협력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롬 10:13~15[상단]). 사역자들과 이 사업을 후원하는 자들은 모두 잃은 양들을 구하기 위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부인한다.

“만일 우리 대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난 몇 년 동안 지금 중요한 중심지가 된 곳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안다면, 가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 직면하여 손을 하늘로 들고 ‘우리는 실패하거나 낙담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새롭고 어려운 지역에서 개척하지 않은 사람들은 개척 사업의 어려움을 깨닫지 못한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해할 수 있다면, 지금까지 이루어진 일들 때문에 기뻐할 뿐만 아니라, 사업의 미래에 대해서도 기뻐할 이유를 알게 될 것이다.

나의 형제들이여, 낙담할 이유가 없다. 좋은 씨가 뿌려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돌보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실 것이다. 영혼 구원을 위한 많은 사업들이 처음에는 큰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되어 왔다는 것을 기억하라.” -교회증언 7권, 242.

“우리가 소유한 모든 돈은 주님의 것이다. 불필요한 것에 재물을 낭비하는 대신, 선교 사업의 부르심에 응하여 투자해야 한다.

새로운 선교지가 개척됨에 따라 재정적 지원에 대한 요청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다.” - SDA 선교 약사, 293.

그러므로 오늘 첫째 안식일 연금은 지금 매우 절실히 필요한 세계 선교를 위해 모금될 것이다. 주님께서 모든 헌금자가 자기 부인과 믿음으로 기쁘게 드리도록 축복하시고, 각자에게 그에 따른 상을 주시기를 기도한다.

-세계 대총회 형제들로부터

왕국들의 계승

기억절: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단 8:26)

참조할 연구 교재: 각 시대의 대쟁투, 423~432.

“모든 나라는 ... 시험의 기간이 주어졌고, 각 나라는 실패함으로 그들의 영광은 사라지고, 그 권세는 떠나갔다.” -선지자와 왕, 535.

1. 강대하게 된 숫양

4월 26일(첫째 날)

가. 바벨론의 패권이 끝나갈 무렵, 다니엘은 무엇을 보았는가? 단 8:1, 2.

나. 세상에 나타나서 강해진 첫 번째 짐승의 행동을 묘사하라. 단 8:3, 4.

다. 천사는 다니엘이 본 숫양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단 8:19, 20.

“선지자의 환상에서 [하나님]께서 한 강력한 통치자를 폐하시고 다른 통치자를 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분께서는 그분의 영원한 왕국을 세우실 온 우주의 군주로 나타내시며, 옛적부터 항상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지요, 모든 지혜의 근원이지요, 현재의 통치자이지요, 미래를 계시하시는 분이시다.” -성경주석[화이트주석] 4권, 1166.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명백하게 드러난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통해 우리는 단순히 걸음으로 드러나는 세속적인 영광이 얼마나 무가치한지를 배워야 한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토록 견고하고 영원할 것처럼 보였던, 우리 세상이 그 이후로 결코 목격하지 못한 모든 권세와 화려함을 지녔던 바벨론이 얼마나 완전히 사라져 버렸는가! ‘풀의 꽃과 같이’ 쇠하여졌다. 메대 바사 왕국과 헬라와 로마 제국도 그렇게 망하였다. 하나님을 기초로 삼지 않은 모든 것은 그렇게 망할 것이다.” -선지자와 왕, 548.

2. “매우 강대한” 염소

4월 27일(둘째 날)

가. 메대 바사를 위협하는 어떤 새로운 세력이 나타났는가? 단 8:5, 21.

나. 이 새로운 제국의 왕이 가진 정복력을 설명하라. 단 8:6, 7.

“지상의 모든 통치자가 행사하는 권력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며, 그에게 부여된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의 성공이 좌우된다. 거룩하신 감찰자께서 각 사람에게 ‘네가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 띠를 띠 동일 것ियो’(사 45:5)라고 하셨다. 그리고 옛적 느부갓네살에게 하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단 4:27)라고 하신 말씀은 각 사람에게 일생의 교훈이 된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 즉 ‘의는 나라도 영화롭게 하고’(잠 14:34),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잠 16:12) 서며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잠 20:28)다는 것을 이해하고,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단 2:21)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가운데 이러한 원칙들이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바로 역사의 철학을 이해하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이 사실이 명백히 제시되어 있다. 여기서는 국가의 힘이란 개인과 마찬가지로 그들을 무적으로 만드는 것처럼 보이는 기회나 시설에 달린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그들이 자랑하는 위대함에 있는 것도 아님을 보여준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려는 충실함으로 측정된다.” -교육, 174, 175.

다. 알렉산더 대왕의 전성기에 헬라 제국이 매우 강대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단 8:8, 22.

“현인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잠 16:32)고 말했다. 걱정에 휘말릴 때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는 남녀는 하나님과 천사들이 볼 때에 군대를 이끌고 전투에서 승리한 가장 유명한 장군보다 더 위대하게 보인다. 한 유명한 황제는 임종 직전에 ‘내가 정복한 모든 업적 가운데 지금 내게 위안을 주는 것은 단 하나뿐인데,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의 걱정적인 성질을 극복하고 정복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알렉산더와 시저는 자신을 정복하는 것보다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더 쉽다는 것을 깨달았다. 여러 나라를 정복한 후, 그들은 멸망했다. 그중 한 사람은 부절체의 희생자가 되었고, 다른 한 사람은 광적인 야망의 희생자가 되었다.” -새자녀 지도법, 95, 96.

3. “지극히 강대한”

4월 28일(셋째 날)

가. 분열된 헬라 제국을 장악하는 것으로 묘사된 새로운 세력은 무엇인가? 단 8:9, 23.

나. 다니엘이 환상에서 본 로마의 행위(이교적 및 교황적 측면 모두)를 설명하라. 단 8:10~12, 24.

“교황권은 세상의 전제 군주가 되었다. 왕들과 황제들은 로마 교황의 칙령에 복종했다. 인류의 운명은 현세와 영원 모두에 걸쳐 그의 통제 아래 있는 것처럼 보였다. … 그러나 ‘교황권의 한낮은 세상의 한밤중과 같았다.’ … 수 세기 동안 유럽은 학문, 예술, 문화의 각 방면에서 아무런 진전도 이루지 못했다. 그리스도교국은 도덕적, 지적으로 마비 상태에 빠졌다.”
-각 시대의 대쟁투, 60.

“예언에 기록된 대로 교황권은 진리를 땅에 내어던졌다. 하나님의 율법은 티끌 속에 짓밟히고, 사람의 유전과 관습이 높임을 받았다. 교황의 지배를 받던 교회들은 일찍부터 일요일을 거룩한 날로 지키도록 강요받았다. 오류와 미신이 만연한 가운데, 심지어 참된 하나님의 백성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져 안식일을 지키면서도 일요일에는 일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으로 교황의 지도자들은 만족하지 않았다. 그들은 일요일을 거룩하게 할 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더럽히도록 요구했으며, 그리고 안식일을 존중하는 자들을 가장 과격 한 말로 비난했다. 로마의 권세에서 도피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율법을 평안히 지킬 수 있었다.” -각 시대의 대쟁투, 65.

다. 이처럼 교활한 방법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권력은 어떻게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는가? 단 8:25.

“교황권이 장기간의 통치 기간중에 세상을 뒤덮고 있던 암흑 속에서도 진리의 빛은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증인들이 있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로 믿고, 성경을 유일한 생애의 지침으로 삼고, 참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다. 세상이 이들에게 얼마나 큰 빛을 지고 있는지는 후손들이 결코 알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은 이단자로 낙인찍히고, 그들의 동기는 의심받았으며, 그들의 인격은 비방받고, 그들의 서적들은 압수당하고, 왜곡되고, 삭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굳건히 서서 다음 세대를 위한 신성한 유업으로써 그들의 신앙을 대대로 유지하였다.” -각 시대의 대쟁투, 61.

가. 다니엘은 환상에 나오는 사건들의 기간에 관해 어떤 대화를 듣게 되었으며, 그 기간이 끝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었는가? 단 8:13, 14.

나. 의식법에 예시되어 있고 다니엘의 환상에서 예언된 성소 정결 예표는 어떤 실제적 사건을 예표했는가? 레 23:27~32; 16:33, 34.

“그리스도의 희생과 제사장 직분을 표상하는 상징적 의식에서 성소 정결 예식은 대체사장이 매년 행하는 봉사의 마지막 봉사였다. 그것은 속죄 사업의 마지막 봉사, 곧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제거하고 도말하는 일이었다. 이는 하늘에서 우리 대체사장이 행하시는 마지막 봉사, 곧 하늘 기록책에 기록된 그분의 백성의 죄를 제거하시고 도말하시는 일을 예표하는 것이었다.” -각 시대의 대쟁투, 352.

“구약 시대에 백성들의 죄가 믿음으로 속죄 제물에 옮겨지고 그 피를 통해 상징적으로 지상의 성소로 옮겨졌던 것처럼, 새 언약에서는 회개한 자의 죄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옮겨지고 그것은 실제로는 하늘 성소로 옮겨 진다. 지상 성소의 정결이 그곳을 더럽혔던 죄들을 제거함으로써 이루어졌던 것처럼, 하늘 성소의 실제적인 정결도 거기에 기록된 죄들을 제거하거나 도말함으로써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기록된 책들을 조사하여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누가 그의 속죄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기록책을 조사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성소의 정결에는 조사하는 일, 곧 심판하는 일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일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재림하시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실 때,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아 주실 상급을 가져오실 것이기 때문이다(계 22:12).” -각 시대의 대쟁투, 421, 422.

다. 천사는 2300 주야 예언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했는가? 단 8:26(14절과 비교).

5. 환상이 부분적으로 이해됨

4월 30일(다섯째 날)

가. 천사 가브리엘은 다니엘을 위해 어떤 사명을 부여 받았는가? 단 8:15~18.

“하늘의 기별을 전하러 왔던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의 다음 지위에 있는 가브리엘이었다.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요한에게 장래를 열어 보이도록 보내신 ‘그 천사’ 가브리엘이었다.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축복이 선언되어 있다(계 1:3).” -시대의 소망, 234.

나. 다른 많은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2300 주야의 때에 대한 예언을 듣고 다니엘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단 8:27.

“또 다른 환상을 통해 장래 일어날 사건들에 대한 더 많은 빛이 비취졌다. 이 환상이 끝날 무렵, 다니엘은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바 ...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단 8:13)는 것을 들었다. ‘이천삼백 주야까지니 그 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단 8:14절)는 대답은 그를 당혹스럽게 했다. 그는 간절히 환상의 의미를 알려고 간구했다. 그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예언된 칠십 년 동안의 포로 기간과, 환상 속에서 하늘의 방문자가 하나님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기까지 이천삼백 년이 경과할 것이라고 말한 것과의 관계를 이해할 수 없었다. 천사 가브리엘이 부분적인 해석을 해주었으나 다니엘은 ‘그 이상은 ... 여러 날 후의 일임이니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기절하였다. 그는 ‘나 다니엘이 혼절하여 수일을 앓다가 일어나서 ...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이상을 인하여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단 8:26, 27)고 자신의 경험에 대하여 기록하였다.” -선지자와 왕, 554.

복습과 생각할 문제

일몰시각 19:21

5월 1일(여섯째 날)

1. 세상 권력들이 정복을 추구하는 흔한 동기는 무엇인가?
2. 염소의 두드러진 뿔이 꺾이게 된 것은 고쳐지지 않은 어떤 성격적 결함 때문인가?
3. 이교 로마와 교황 로마 시대는 어떻게 유사했는가?
4. 2,300주야가 끝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었는가?
5. 다니엘이 기절했을 때 그 환상의 어느 부분이 그에게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 있었는가?

환상이 해석됨

기억절: “그러므로 너희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증거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일곱 이레와 육십이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증거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를 것이며”(단 9:25)

참조할 연구 교재: 각 시대의 대쟁투, 409~422.

“천사는 다니엘이 8장의 환상에서 이해하지 못한 것, 곧 때[이천삼백 주야]에 관한 말씀을 설명해 주기 위한 특별한 목적으로 그에게 보내졌다.” -각 시대의 대쟁투, 326.

1. 이해하기 위해 읽음

5월 3일(첫째 날)

가. 메대와 바사가 바벨론을 정복할 무렵, 다니엘은 무엇을 연구하고 있었는가? 단 9:1, 2.

“바벨론 가운데서 하나님께 충성했던 자들이 주님을 찾고 그들의 구원을 예언하신 말씀들을 연구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도록 왕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계셨다.” -성경주석[화잇주석] 4권, 1172.

나. 다니엘이 읽고 있던 예언의 의미를 설명하라. 렘 25:8~14.

다. 예레미야의 예언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엇을 하라고 촉구하였는가? 렘 29:10~14.

“예레미야의 글은 저희[포로들] 손 닿는 곳에 있었고, 그 안에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회복되기까지 경과할 기간이 명백히 명시되어 있었다. ... 간절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유다의 남은 자들에게 은혜가 베풀어질 것이었다.” -선지자와 왕, 552.

가. 다니엘은 읽은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단 9:3.

“확실한 예언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으로 다니엘은 이 약속들이 속히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존되기를 간구하였다. 그는 그의 탄원에서 하나님의 뜻에 미치지 못한 백성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며 그들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자복하였다.” -선지자와 왕, 554, 555.

나. 다니엘의 기도를 읽고 나서, 그가 어떻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중재했는지에 대해 어떤 점을 알 수 있는가? 단 9:4~19.

“다니엘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겨 왔고 하늘로부터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일컬음을 받았으나, 이제 그는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의 절박한 필요를 간청하였다.” -선지자와 왕, 555.

다. 다니엘은 특히 무엇에 대해 염려했는가? 단 9:16, 17.

“거의 칠십 년 동안 이스라엘은 포로 생활을 해왔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유로 택하신 땅은 이방 민족의 손에 붙인바 되었다. 하늘의 빛을 받던 사랑스러운 성, 한때 온 땅의 기쁨이었던 그 도시는 이제 멸시받고 황폐해졌다. 하나님의 언약궤와 속죄소를 덮고 있던 영광의 그룹들이 있던 성전은 폐허가 되었다. 그 곳도 부정한 발길에 의해 더럽혀졌다. 이전의 영광을 알고 있었던 신실한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구별해 주셨던 거룩한 성전이 황폐해진 것을 보고 깊은 슬픔에 잠겼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을 목격한 증인들이었다. 그들은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목격했다. 또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와 그분 앞에서 신중하게 행할 것 같으면 그분께서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에 대한 증인들이기도 했다. 나이 많고 백발의 순례자들이 기도하기 위해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시온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분의 의의 영광으로 덮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그 돌들에 입 맞추고 눈물로 그 돌들을 적셨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포로 기간의 정해진 시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음을 알았으나 그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 자신이 할 몫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금식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 자신의 죄와 백성의 죄를 자복하였다.” -성경주석 [화이트주석] 4권, 1172.

가. 다니엘의 기도는 왜 중단되었는가? 단 9:20, 21.

“하늘은 선지자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다니엘이 용서와 회복을 위하여 탄원하는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힘센 가브리엘 천사가 다시 그에게 나타났다.” -선지자와 왕, 556.

“하늘의 기별을 전하러 다니엘에게 왔던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 다음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천사 가브리엘이었다. …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경건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언서 말씀들을 연구할 때 그분의 축복이 함께할 것이다.” -시대의 소망, 234.

나. 가브리엘 천사의 방문 목적은 무엇이었으며, 그것은 8장의 이상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단 9:22, 23.

“[가브리엘은] 바벨론의 멸망과 벨사살의 죽음 이전에 그가 보았던 이상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했다.” -선지자와 왕, 556.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에게 ‘이 이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단 8:16)고 명하셨다. 그 사명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했다. 그 명령에 따라 천사는 얼마 후 다니엘에게 다시 와서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명철을 주려고 나왔나니’ ‘그러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단 9:22, 23)고 말했다. 8장의 환상에는 설명되지 않은 중요한 한 가지, 곧 때에 관한 것, 즉 2300일의 기간에 관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천사는 설명을 재개하면서 주로 때에 관한 문제에 집중하였다.” -각 시대의 대쟁투, 325.

다. 유대 민족을 위해 따로 정해진 기간은 언제였으며, 그 기간 동안 무엇이 이루어질 것인가? 단 9:24.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기별의 핵심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이었다. 이처럼 구주께서 친히 전하신 복음 기별은 예언에 근거한 것이었다. 그분께서 성취되었다고 선언하신 ‘때’는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알려준 시기를 말한 것이다. … 예언에서 하루는 1년을 의미한다(민 14:34; 겔 4:6 참조). 칠십 이레, 즉 사백구십일은 사백구십 년을 나타낸다.” -시대의 소망, 233.

가. 칠십 이레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조서는 무엇이었는가? 단 9:25.

“아닥사스다 롱기마누스의 칙령으로 완성된 예루살렘 중건령은 기원전 457년 가을에 효력을 발생하였다(스 6:14; 7:1, 9 참조). 이때부터 사백팔십삼년은 서기 27년 가을까지 이른다.” -시대의 소망, 233.

나. 이 예언을 성취한 칙령에 담긴 내용을 설명하라. 스 7:11~13, 21~27.

“여호와께서 ...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에스라가 왕의 은혜를 얻게 하셨다. 왕은 에스라에게 성전 재건을 위한 풍족한 재물을 주었고, 그것으로 유대인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었다.” -성경주석[화이트주석] 3권, 1134.

다. 이 예언은 또한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 무엇을 예언했는가? 단 9:26[상단], 27[상단].

“예언에 따르면, 이 시기는 메시아, 곧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까지 이르도록 되어 있었다. 서기 27년, 예수님께서서는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으며 곧이어 그분의 공생애를 시작하셨다. 그때 ‘때가 찼다’는 기별이 선포되었다.

그리고 천사가 이르되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로 더불어 한 이레[7년] 동안의 언약을 정하겠’다고 하였다. 구주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 7년 동안 복음은 특히 유대인들에게 전파될 예정이었다. 3년 반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리고 그 후에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야 했다. ‘그가 그 이레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단 9:27)다. 서기 31년 봄, 참된 희생 제물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갈바리에서 제물로 드러지셨다. 그때 성전의 휘장이 둘로 찢어짐으로 제사 제도의 신성함과 의미가 떠났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지상의 희생 제사와 예물이 금지할 때가 이르렀다.

한 이레, 즉 7년의 기간이 서기 34년에 끝났다. 그 때 유대인들에 의해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음으로써 마침내 복음은 최종적으로 거부 되었다. 박해로 말미암아 흩어진 제자들은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행 8:4)하였다.” -시대의 소망, 233.

가. 490년이 끝난 후 어떤 비극이 일어날 예정이었는가? 단 9:26[하단], 27[하단]; 눅 21:20.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유대인들의 완고한 고집을 더욱 확고하게 해줄 따름이었다. ... [그들의 지도자들은] 맹목적이고 모독적인 오만함으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이므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주장했다. 그들은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로마군이 성전을 포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들을 매수하여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려야 한다고 공포하게 했다. 마지막 순간까지 수많은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개입하셔서 적들을 물리치실 것이라는 믿음을 굳게 붙잡았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호를 거절하였으므로 이제는 그들에게는 아무런 방어 수단이 없었다. 불행한 예루살렘이여! 내분(內紛)으로 갈라지고, 피차의 손으로 죽임을 당한 자녀들의 피로 거리는 붉게 물들었으며, 이방 군대가 성벽을 무너뜨리고 용사들을 살육하였다!” -각 시대의 대쟁투, 28, 29.

나. 이 처음 기간을 이해했으니, 이제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단 8:14; 9:24.

“지금까지 예언의 모든 사건들은 놀랍도록 성취되었으며, 70주간의 시작은 의심의 여지 없이 기원전 457년에 시작되어 서기 34년에 끝났음이 확정되었다. 이 자료를 근거로 2300일의 끝을 찾는 데 어려움은 없었다. 2300일에서 70주일 즉 490일을 빼내므로 1810일이 남게 된다. 490일이 끝난 후에도 여전히 1810일이 더 성취되어야 했다. 서기 34년부터 1810년을 더하면 1844년이 된다. 따라서 다니엘 8장 14절의 2300일은 1844년에 마치게 된다. 이 긴 예언 기간이 끝날 때, 하나님의 천사의 증언에 따라 ‘성소가 정결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성소가 정결하게 될 시기가 명확하게 제시되었다.” -각 시대의 대쟁투, 328.

복습과 생각할 문제

일몰시각 19:28

5월 8일(여섯째 날)

1. 다니엘은 선지자였지만 무엇을 이해하기를 간절히 원했는가?
2.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과거 죄에 대한 회개 기도에 자신을 포함시킨 이유는 무엇인가?
3. 다니엘 9장이 다니엘 8장의 비밀을 풀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4. 490년 예언의 시작을 알린 사건을 설명하라.
5. 다니엘과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예루살렘의 멸망을 묘사하라.

봉인된 책이 다시 펼쳐짐

기억절: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 같이 달리라 하거늘”(계 10:9)

참조할 연구 교재: 각 시대의 대쟁투, 391~408.

“요한을 가르치신 힘센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이셨다.” -성경주석[화잇주석] 7권, 971.

1. 지혜로운 자는 빛날 것임

5월 10일(첫째 날)

가. 다니엘의 마지막 환상 끝에 나타난 시련과 승리를 설명하라. 단 12:1, 2.

나. 그 날에 지혜로운 자는 악한 자와 어떻게 구별될 것인가? 단 12:3; 마 13:41~43.

“회개한 영혼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그의 어둠은 사라지고 새로운 하늘의 빛이 그의 영혼에 비춘다. ‘영혼을 얻는 자는 지혜롭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사람이 하나님과 협력하여 이루어진 일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영원토록 지속될 것이다. 하나님을 자기의 지혜로 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나는 사람은 왕들 앞, 세상의 소위 높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기이한 빛에 이르게 하신 분을 찬양할 것이다. 과학과 문학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스러운 복음이 가져다줄 수 있는 빛을 사람들의 어두워진 마음에 비취줄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영혼을 밝히는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다.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외친 것은 당연하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믿는 자들 안에서 인격이 되며, 그들을 모든 사람이 알고 읽을 수 있는 살아있는 편지로 만든다.” -그리스도인 교육의 기초, 199, 200.

가. 다니엘은 이제 어떤 지시를 받았는가? 단 12:4[상단], 8, 9[상단].

“국사의 중임과 세계적인 지배권을 가진 나라들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았던 다니엘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의 사자로 선택받아 다가올 시대의 신비에 대한 많은 계시를 받았다. 그의 이름으로 된 책 7장에서 12장에 기록된 그의 놀라운 예언들은 선지자 자신도 완전히 깨닫지 못하였으나 그의 생애가 끝나기 전에, 그는 ‘마지막 때’ 곧 이 세상 역사의 종말에 그는 자신의 몫을 담당하고 그의 업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복된 확신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거룩하신 목적의 모든 것을 그가 이해하도록 허락되지는 않았다. ...

이 세상 역사의 종말이 가까워짐에 따라, 다니엘이 기록한 예언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그 시대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우리의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 예언들은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의 가르침과 연결시켜야 한다.” -선지자와 왕, 547.

나. 천사의 말이 2300일의 비밀을 가리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으며, 그 비밀은 언제 드러날 것인가? 단 8:17; 12:4, 9[하단].

“예언들은 심판이 시작될 때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을 제시한다. 이것은 특히 다니엘서가 그 사실을 말해 준다. 그러나 다니엘은 마지막 날에 관한 예언 부분을 ‘마지막 때까지’ 봉합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 예언들이 성취될 때까지는 심판에 관한 기별을 선포할 수 없었다. 선지자는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단 12:4)고 말하였다. ...

1798년 이후 다니엘서는 봉인이 풀렸고, 예언에 대한 지식이 증가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심판이 임박했다는 엄숙한 기별을 선포해 왔다.

16세기의 위대한 종교개혁과 마찬가지로, 재림 운동은 기독교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 동시에 나타났다. 유럽과 미국에서 믿음과 기도의 사람들은 예언을 연구하고, 영감받은 기록들을 추적하면서 만물의 끝이 가까웠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다. 세계 각처에 있는 고립된 그리스도교 단체들이 오직 성경 연구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 -각 시대의 대쟁투, 356, 357.

가. 다니엘이 보고 듣는 동안, 마지막 때로 이어지는 시기를 알려주는 엄숙한 포고는 무엇이었는가? 단 12:5~7.

나. 다른 구절들을 참조하여 이 예언적 시기가 언제인지 확인하라. 단 7:25; 계 11:2, 3; 12:6, 14; 13:5.

“사도 바울은 교회에 그 당시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는 ‘먼저 배도 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살후 2:3)라고 말했다. 큰 배도와 ‘불법의 사람’의 오랜 통치 기간이 지나야만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대할 수 있다. ‘불법의 사람’은 ‘불법의 비밀’, ‘멸망의 아들’, ‘불법한 자’라고도 불리며, 이는 예언대로 1260년 동안 최상권을 잡은 교황권을 상징한다. 이 기간은 1798년에 끝났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 이전에 이루어질 수 없었다. 바울은 1798년까지의 기독교 시대 전체를 그의 경고에 포함시켰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기별은 바로 그 이후에 선포되어야 한다.” -각 시대의 대쟁투, 356.

다. 천사는 1260년이라는 기간을 어떻게 묘사했는가? 단 12:10[상단].

“13세기에 교황권의 가장 무서운 도구인 종교재판소가 설립되었다. 흑암의 왕은 교황청의 지도자들과 결탁했다. 그들의 비밀회의에서 사단과 그의 부하들은 악한 자들의 마음을 지배하였으며, 그와 동시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의 불의한 법령을 기록하고 인간의 눈으로는 차마 볼 수 없는 끔찍한 행위의 역사를 기록했다. ‘큰 성 바벨론’은 ‘성도들의 피에 취’하였다. 수백만 순교자들의 훼손된 몸은 그 배도한 권력에 대하여 신원(伸冤)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

로마 교황권의 권세 아래 있던 세상의 상태는 호세아 선지자의 말이 두려울 정도로 놀랍게 성취된 것을 보여주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사위와 살인과 투절과 간음뿐이요 강포하여 피가 피를 뒤대임이라’(호 4:6, 1, 2).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버린 결과였다.” -각 시대의 대쟁투, 59, 60.

가. 다니엘 12:7과의 유사점을 고려할 때, 선지자 요한은 다니엘의 봉인된 이상이 열리는 것을 어떻게 보았는가? 계 10:1, 2, 5, 6.

“요한에게 지시하신 그 힘센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이셨다. 그분께서 오른발을 바다에, 왼발을 육지에 딛고 계신 것은 사단과의 대쟁투의 마지막 장면에서 그분께서 행하시는 활동 범위를 보여준다. 이러한 자세는 온 땅을 지배하시는 그분의 절대적인 권능과 권위를 나타낸다. ...

요한은 작은 책이 봉인되지 않은 것을 보았다. 그러므로 다니엘의 예언은 세상에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이 전하여질 적절한 시기를 지적해 준다. 작은 책이 봉인되지 않은 것은 때와 관련된 기별이었다. ...

천사가 엄숙한 맹세로 선포하는 이 때는 이 세상 역사의 끝도 아니고, 은혜 기간의 끝도 아니며, 우리 주님의 재림에 앞서 있을 예언적 기간의 끝이다. 즉, 사람들은 정해진 때에 대한 또 다른 기별은 없을 것이다. 이 시기 이후, 즉 1844년에 이르르면, 더 이상 추적할 예언적 시기는 확실하게 없다. 가장 긴 예언적 기간의 계산은 1844년 가을까지이다.

천사가 한 발은 바다에, 다른 한 발은 땅에 딛고 있는 모습은 기별이 선포될 광범위한 범위를 의미한다. 이 기별은 넓은 바다를 건너 다른 나라들, 나아가 온 세상에 선포될 것이다.” - 성경주석[화이트주석] 7권, 971.

나. 요한이 이상에서 작은 책을 먹는 경험이 1840년대 재림 운동의 경험과 어떻게 유사한지 설명하라. 계 10:9~11.

“작은 책을 먹는다는 것은 진리를 깨닫고 기쁜 마음으로 기별을 받아들이는 것을 나타낸다. 주님의 재림 시기에 관한 진리는 우리 영혼에 귀중한 기별이었다.” - 성경주석[화이트주석] 7권, 971.

“기대했던 시간이 지나갔으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타나지 않으셨다. 진실한 믿음과 사랑으로 구주를 기다리던 사람들은 쓰라린 실망을 경험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성취되고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노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시험하고 계셨다. ...

그러나 예수님과 모든 천군 천사는 시련을 겪고 신실했으나 실망한 자들을 사랑과 동정으로 바라보셨다. 만일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가리는 휘장이 걷혀질 수 있었다면, 천사들이 이 굳게 선 사람들에게 다가가 사단의 화살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을 것이다.” - 각 시대의 대쟁투, 374.

가. 동시대 인물인 에스겔은 다니엘을 어떻게 묘사했는가? 겔 14:14.

나. 우리는 어떻게 다니엘처럼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있을 수 있는가? 단 12:10[하단]; 잠 9:10; 마 7:24, 25.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난’의 때가 곧 우리에게 닥칠 것이다. 우리는 현재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너무 게을러서 얻으려 하지 않는 경험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흔히 환난은 예상보다 실제로 당할 때 더 가벼운 법이지만, 우리 앞에 놓인 위기는 그렇지 않다. 아무리 자세하게 묘사해도 그 시련의 크기를 다 표현할 수 없다. 그 시련의 때에 모든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변호해야 한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겔 14:20).

이제 우리의 크신 대제사장께서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는 동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 구주께서는 생각조차도 유혹에 굴복하지 않으셨다. 사단은 인간의 마음 가운데 발붙일 발판을 마련할 곳을 찾는다. 어떤 죄악된 욕망을 마음속에 품게 되면, 이를 통해 사단은 그의 유혹의 힘을 발휘한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요 14:30)라고 친히 말씀하셨다. 사단은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승리를 얻을 만한 어떤 것도 찾을 수 없었다. 그분께서는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셨으며, 사단이 이용할 만한 죄가 그분 안에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환난의 때에 서게 될 자들이 반드시 나타나야 할 상태이다.” -각 시대의 대쟁투, 622, 623.

다. 결국 천사는 어떻게 다니엘을 돌려보냈는가? 단 12:13.

1. 다니엘 12:2에 언급된 부활은 언제 일어날 것인가?
2. 다니엘의 봉인된 예언이 풀리게 된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인가?
3. 마지막 때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은 무엇인가?
4. 다니엘서의 시작을 알리는 어떤 예언이 있는가?
5. 나는 어떻게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포함될 수 있는가?

빛모심의 선지자

기억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요 13:23)

참조할 연구 교재: 사도행적, 539~556.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 요한은 주님을 위해 충실하고 열성적인 일꾼으로 드러났다.” - 사도행적, 546.

1.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

5월 17일(첫째 날)

가. 제자 요한이 예수님과 매우 친밀했음을 보여주는 어떤 예가 있는가? 마 17:1; 막 14:33; 눅 8:51.

“그[요한]는 그리스도와 특별한 정도로 우정을 누린 것 같으며, 구주의 신임과 사랑의 많은 증거를 받았다. 그는 변화산에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겿세마네에서 그분의 고뇌를 목격하도록 허락받은 세 제자 중 한 명이었으며,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고통의 시간에 그분의 어머니를 모시도록 맡기신 것도 그에게였다.” - 사도행적, 539.

나. 요한은 제자들 중에서 어떻게 특별한가? 요 13:23; 21:20[상단], 24.

“요한과 야고보, 안드레와 베드로, 그리고 빌립과 나다나엘, 마태는 다른 제자들보다 예수님과 더 가까운 교제를 가졌으며, 그분의 이적을 더 많이 목격하였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과 더욱 가까운 관계에 있었다. 그들은 거의 항상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분의 이적을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 요한은 예수님과 더욱 깊은 친밀한 관계를 맺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로 특별히 구별되었다. 구주께서는 그들 모두를 사랑하셨으나, 요한의 마음이 가장 잘 받아들였다. 그는 다른 제자들보다 어렸고,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신뢰로 예수님께 마음을 열었다. 그리하여 그는 그리스도와 더욱 깊은 교감을 나누었고, 그를 통해 구주의 가장 깊은 영적 가르침이 당신의 백성에게 전달되었다.” - 시대의 소망, 292.

가. 예수님께서 요한과 그의 형제 야고보에게 지어주신 이름의 의미는 무엇인가?
막 3:17.

“요한은 본성적으로 그의 후일의 경험에서 드러낸 아름다운 성품을 타고난 사람이 아니었다. 천성적으로 그는 심각한 결점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교만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며 명예에 대한 야망이 있을 뿐 아니라, 성급하고 해를 받으면 분개하는 성격이었다. 그와 그의 형제는 ‘우리의 아들’이라 불렸다. 악한 성질, 복수하려는 욕망, 비판적인 정신이 사랑받는 제자 안에 있었다. 그러나 거룩하신 교사께서는 이 모든 것 이면에 감추인 그의 열정적이고 진실하며 사랑스러운 마음을 알아보셨다. 예수님께서서는 그의 이기심을 책망하시고, 그의 야망을 좌절시키시며, 그의 믿음을 시험하셨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그의 영혼이 갈망하던 것, 곧 거룩함의 아름다움과 사랑의 변화시키는 능력을 그에게 나타내셨다.” -사도행적, 540.

나. 요한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새로운 방법을 어떻게 배우게 되었는가? 요 13:34; 요일 4:7, 8.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그분의 사업에 적합하게 되기 위해 필수 조건인 온유와 겸손과 사랑을 제시하신 그리스도의 교훈은 요한에게 최고의 가치가 있었다. 그는 모든 가르침을 소중히 여겼으며, 자신의 생애를 거룩하신 모본에 일치시키려고 끊임없이 노력하였다. 요한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분별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그가 바라도록 가르침 받았던 세상의 화려함과 권력이 아니라,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요 1:14) 영광이었다.” -사도행적, 544.

다.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의 결과를 설명하라. 요일 3:10, 11; 요 13:35.

“주님에 대한 요한의 깊은 애정은 그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원인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랑의 결과였다. 요한은 예수님과 같이 되기를 갈망하였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변화시키는 감화 아래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었다. 자아는 예수님 안에 감추어졌다. 그의 모든 동료들 중에서 요한은 그 놀라운 생명의 능력에 자신을 온전히 맡겼다. ...

요한은 구주를 경험적으로 알았다. 그의 주님의 교훈들은 그의 영혼에 새겨졌다. 그가 구주의 은혜를 증거할 때, 그의 단순한 언어는 그의 전신에 스며든 사랑의 웅변적 표현이었다.” -사도행적, 544, 545.

가. 요한을 죽이려는 시도가 실패한 후, 그는 결국 어디로 보내졌는가? 계 1:9.

“요한은 그의 신앙 때문에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소환되었다. 그곳에서 당국자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허위로 진술했다. 거짓 증인들은 그가 선동적인 이단을 가르친다고 비난하였다. 이러한 비난으로 그의 원수들은 제자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지기를 바랐다.

요한은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그리고 단순하고 솔직하게 자신을 변호했으며, 그의 말은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 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의 지혜와 웅변에 놀랐다. 그러나 그의 증언이 설득력이 있을수록 반대자들의 증오심은 더욱 깊어졌다. ...

요한은 끓는 기름 가마 속에 던져졌으나 주님께서는 풀무불 가운데서 세 히브리인을 구원하신 것처럼 그분의 충실한 종의 생명을 보존하셨다. ‘저 미혹하는 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모두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요한은 ‘나의 주님께서서는 사단과 그의 사자들이 그분을 모욕하고 고문하려고 꾸민 모든 것을 참아내셨다. 그분께서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셨다. 나는 그분을 위해 고난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라고 선언했다. ...

이 말은 영향을 미쳤고 요한은 그를 가마솥에 던졌던 바로 그 사람들에게 의해 가마에서 건져내졌다. ...

황제의 칙령으로 요한은 밧모섬으로 유배되었다. 그의 원수들은 이곳에서 그의 영향력이 더 이상 미치지 않을 것이며, 마침내 고난과 고통 속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사도행적, 569, 570.

나. 그의 유배는 어떤 귀한 혜택을 가져다주었는가? 계 1:1~3, 10, 11.

“에게해 가운데 있는 황량하고 바위투성이인 밧모섬은 로마 정부가 죄수들을 유배시키는 장소로 선택한 곳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에게 이 음울한 거처는 천국의 문이 되었다. 이곳에서 그는 생활의 번잡함과 이전의 활동적인 사역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하늘의 천사들과 교제하며, 그들에게서 미래 세대의 교회를 위한 가르침을 받았다.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장면에 일어날 사건들이 그의 앞에 펼쳐졌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들을 기록하였다.” -사도행적, 570, 571.

가. 그리스도께서는 밧모섬의 환상에서 요한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계 1:12~16.

“그[사랑하는 제자]는 겻세마네에서 고통의 핏방울로 얼룩진 주님의 얼굴을 보았었다. 그분께서는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사 52:14)셨다. 그분께서는 로마 군인들의 손에 넘겨져 낡은 자주색 옷을 입으시고 가시관을 쓰신 주님을 보았었다. 그분께서는 또한 갈바리의 십자가에 못 박혀 잔혹한 조롱과 학대를 당하시는 주님을 보았었다. 이제 요한은 다시 주님을 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그분의 모습이 얼마나 변했는가! 그분께서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멸시와 굴욕을 당하시는 슬픔의 사람이 아니시다. 그분께서는 하늘의 광채로 빛나는 옷을 입고 계신다. … 밧모섬은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으로 찬란하게 빛났다.” -사도행적, 582.

나. 요한의 반응은 어떠했으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셨는가? 계 1:17~19.

“요한은 영광을 받으신 주님 앞에서 살 수 있는 능력을 얻었다. 그러자 그의 경이로운 시야 앞에 하늘의 영광이 펼쳐졌다. 그는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었고, 지상의 분쟁 너머로 구속받은 자들의 흰옷 입은 무리를 볼 수 있었다. 그는 하늘 천사들의 음악과 어린양의 피와 그들의 증거 하는 말로 승리한 자들의 승리의 노래를 들었다. 그에게 주어진 계시에는 하나님의 백성의 경험 가운데 펼쳐지는 흥미진진한 장면들이 차례대로 나타났으며, 그 교회의 역사가 세상의 끝날까지 예언되었다. 지극히 중요한 문제들이 표상과 상징으로 요한에게 제시되었으며, 이는 그의 시대와 미래 시대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 앞에 놓인 위험과 투쟁을 지혜롭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것들을 기록해야 하였다.” -사도행적, 582, 583.

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어떤 기별을 전하는가? 계 1:4~6; 3:22.

“이 계시는 그리스도교 시대 전체에 걸쳐 교회를 인도하고 위로하기 위해 주어졌다. 그러나 종교 교사들은 이것이 봉인된 책이며 그 비밀은 설명할 수 없다고 선언하였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언의 기록을 외면하고 시간을 할애하여 연구하기를 거절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이 이 책을 그렇게 여기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사도행적, 583.

가. 일곱 금 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그리스도의 이상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계 1:20.

“그리스도께서는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으로 언급되었다. 이는 그분과 교회들의 관계를 상징한다. 그분께서는 그분의 백성과 끊임없이 교통하시고 계신다. 그들의 진정한 상태를 아신다. 그들의 질서와 경건함, 헌신을 살피신다. 비록 그분께서는 하늘 성소에서 대체 사장과 중보자이시지만, 지상의 교회들 사이를 이리저리 거니시는 분으로 나타나 있다. 지칠 줄 모르는 경각심과 끊임없는 경계로, 그분께서는 그분의 어떤 파수꾼들의 불빛이 희미해지거나 꺼져가는지를 살피신다. 만약 촛대를 단순히 인간의 손길에 맡기셨다면, 깜빡거리는 불꽃은 약해져 꺼져버렸을 것이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집의 참된 파수꾼이시며, 성전 뜰의 참된 청지기이시다. 그분의 지속적인 돌보심과 유지하시는 은혜는 생명과 빛의 근원이다.” -사도행적, 586.

나.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일곱 교회로 대표되는 교회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기별의 목적을 설명하라.

“일곱 교회의 이름들은 그리스도교 시대의 각기 다른 시기의 교회를 상징한다. 숫자 7은 완전성을 나타내며, 기별들이 세상 끝날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을 상징한다. 또한 사용된 상징들은 세상 역사의 각기 다른 시대의 교회의 상태를 나타낸다.” -사도행적, 585.

“교회는 결함이 있었다. 그러므로 엄중한 책망과 징계를 받을 필요가 있었다. 요한은 복음의 근본 원칙을 잊어버리고 구원의 소망을 위태롭게 하는 자들에게 경고와 책망과 호소의 기별을 기록하도록 영감을 받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실 필요가 있다고 여기신 책망의 말씀은 언제나 부드러운 사랑과 회개하는 모든 신자에게 평화의 약속을 담고 있다.” -사도행적, 587.

1. 예수님께서서는 편애하시는 분이 아니셨는데, 요한은 왜 사랑하는 제자라고 불렀는가?
2. 무엇이 요한의 삶과 품성에 변화를 가져왔는가?
3.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없이 하려는 악한 자들의 계획을 어떻게 좌절시키셨는가?
4. 흔히 봉인된 책으로 오해되지만,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5. 하나님께서 교회에 책망의 기별을 보내신 목적을 설명하라.

용, 여자, 그리고 남은 자손

기억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계 12:17)

참조할 연구 교제: 각 시대의 대쟁투, 582~592.

“그토록 큰 희생을 치르고 얻은 양심의 자유는 더 이상 존중받지 못할 것이다. 곧 다가올 싸움에서 우리는 선지자의 말이 실제로 실현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각 시대의 대쟁투, 592.

1. 교회에 대한 계시

5월 24일(첫째 날)

가. 요한의 네 번째 이상의 시작 부분에서 무엇을 볼 수 있는가? 계 12:1.

나. 성경에서 여자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고후 11:2; 겔 23:2~4; 계 17:3~6.

“요한계시록 17장에서 바벨론은 여인으로 묘사된다. 성경에서 여인은 교회를 상징하며, 정숙한 여인은 순결한 교회를, 음란한 여인은 타락한 교회를 상징한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 사이의 거룩하고 지속적인 관계의 특성을 결혼이라는 결합으로 표현된다. 주님께서는 엄숙한 언약으로 그분의 백성을 그분과 결합시키셨다. 그분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동시에 하나님만 섬길 것을 맹세하였다. 그분께서는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호 2:19). 또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 남편이니라’(렘 3:14)고 하셨다. 그리고 바울도 신약성경에서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다’(고후 11:2)라고 말했다.” -각 시대의 대쟁투, 381.

가. 교회는 메시아의 탄생을 어떻게 간절히 기다렸는가? 계 12:2; 사 9:6; 눅 2:25~32

“야곱이 임종시에 한 유언은 그들[유대인들 가운데 신실한 자들]을 희망에 부풀게 하였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창 49:10)라. 이스라엘의 권세가 쇠퇴하여지는 사실은 메시아의 강림이 임박했음을 증거하였다. 다니엘의 예언은 모든 세상 나라를 계승할 왕국에 대한 그분의 통치가 영광스럽게 임하실 것을 묘사하였다. 선지자는 이 나라는 ‘영원히 설 것이라’(단 2:44)고 말했다. 그리스도의 사명의 본질을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지만, 이스라엘에 왕국을 세우고 만국을 구원할 강력한 왕에 대한 기대는 널리 퍼져 있었다. 때가 찼다. 인류는 오랜 세월 동안 죄악으로 더욱 타락하여 구속주의 강림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 -시대의 소망, 34.

나. 큰 붉은 용은 어떤 국가 권력을 상징하는가? 계 12:3.

“큰 붉은 용과 표범 같은 짐승, 그리고 새끼 양 같은 뿔을 가진 짐승의 상징에 의해, 특별히 하나님의 율법을 짓밟고 그분의 백성을 박해하는 일에 참여할 지상의 정부들이 요한에게 제시되었다.” -성경주석[화잇주석], 7권, 972.

다. 이 용과 같은 권세로 인해 교회와 메시아는 어떤 위험에 직면했는가? 계 12:4.

“사단은 땅과 하늘 사이의 깊고 건널 수 없는 심연을 만들려고 힘써 왔다. 그는 거짓말로 사람들을 죄를 짓는 데 더욱 대담하게 만들었다. 그의 목적은 하나님의 인내심을 약화시키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소멸시켜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단의 관할 하에 내버려 두시게 하는 것이었다.” -시대의 소망, 34, 35.

“사단은 하늘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궁정에서 가지신 그 지위를 시기하여 미워하였다. 사단은 그의 자리에서 쫓겨났을 때 그리스도를 더욱 미워하였다. 죄인들을 구속하시기로 약속하신 그분을 미워하였다. 그러나 사단이 지배권을 주장하는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을, 인간의 연약함에 싸인 무력한 아기로 오시는 것을 허락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모든 인간과 마찬가지로 인생의 위험에 직면하게 하였고, 인류의 모든 자녀가 겪어야 할 실패와 영원한 손실의 위험을 무릅쓰고 싸워야 하는 싸움을 허락하셨다.” -시대의 소망, 49.

가. 과거에 대한 어떤 계시가 요한에게 보여졌으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계 12:7~9.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반역은 하늘 궁정에서, 덮는 그룹인 루스벨로부터 시작되었다. 사단은 하늘 회의에서 첫 번째가 되고 하나님과 동등해지기로 작정했다. 그는 자기 휘하의 천사들 사이에 불만의 정신을 퍼뜨리며 반역의 일을 시작하였다. 그는 매우 교묘한 방법으로 일했기 때문에 그의 의도가 완전히 드러나기 전에 많은 천사들이 그에게 충성을 다짐하였다. 심지어 충성스러운 천사들조차도 그의 본성을 완전히 분별하지 못했고, 그의 일이 어디로 향하는지 알지 못했다. 사단은 많은 천사들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는 데 성공하자,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 천사들이 그리스도께서 차지하셨던 자리를 자신이 차지하기를 원한다고 주장했다.

이 악은 계속 역사하여 불만의 정신이 무르익어 적극적인 반역으로 이어질 때까지 계속되었다. 그러자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고, 사단과 그와 동조하는 모든 자들이 쫓겨났다.” -성경주석[화이트주석], 7권, 972, 973.

나. 요한계시록 12장 10절과 11절의 선언은 예수님의 봉사 기간 중에 사단이 완전히 쫓겨났음을 어떻게 보여주는가?

“예언자의 눈으로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큰 싸움에서 펼쳐질 장면들을 미리 내다보셨다. 그분께서는 ‘다 이루었다’라고 부르짖으실 때 온 하늘이 환호할 것을 아셨다. 그분의 귀에는 멀리 하늘 궁정에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와 승리의 합성을 들으셨다. 그분께서는 그때 사단의 제국이 종말을 고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우주로부터 이 세계에서 저 세계로 전파될 것을 아셨다.” -시대의 소망, 679.

“구속의 경륜에는 인간의 구원보다 훨씬 더 넓고 깊은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지 이것만을 위해서가 아니셨다. 이는 단지 이 작은 세계의 주민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마땅히 여겨야 할 만큼 여기도록 하시기 위함만도 아니었다. 그것은 온 우주 앞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시기 위함이었다. ... 인류의 구원을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행위는 인간에게 하늘에 접근할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온 우주 앞에서 사단의 반역을 다루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의 방식을 정당화 할 것이었다. 이는 하나님의 율법의 불변성을 확립하고 죄의 본질과 결과를 드러낼 것이었다.” -부조와 선지자, 68, 69.

가. 이제 교회에 어떤 위험이 더 증가할 것인가? 계 12:12, 13.

“사단은 자기가 찬탈한 제국이 결국 빼앗길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가능한 한 많이 멸망시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로 결심했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위하여 이처럼 용서하시는 사랑과 공휼을 보이셨기 때문에 사단은 인간을 미워했으며, 이제 인간을 파멸로 이끌기 위해 온갖 계략을 꾸밀 준비를 했다. 사단은 자신의 절망적인 처지 때문에 더욱 힘 있게 그 계획을 실행했다.” -성경주석[화잇주석] 7권, 973, 974.

“선과 악의 대쟁투는 세상 종말에 이르러 더욱 격렬해질 것이다. 각 시대를 통하여 사단의 분노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해 나타났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의 권세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당신의 백성에게 은혜와 성령을 부어 주셨다.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그분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고 미래의 모든 세대를 위해 그 복음을 기록할 때, 그들은 특별히 성령의 깨우침을 받았다. 그러나 교회가 마지막 구원에 가까워질수록 사단은 더욱 큰 권능으로 활동할 것이다. ... 그리고 각 시대의 투쟁하는 중에 사단이 얻은 모든 노련한 간계와 교활함, 그리고 발전된 모든 잔혹함이 마지막 투쟁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사용될 것이다. 이 위험한 시기에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세상에 주님의 재림에 대한 경고를 전해야 하며, ‘점도 없고 흠도 없이’(벧후 3:14) 그분 앞에 설 한 백성을 준비시켜야 한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특별한 선물이 사도 시대 못지않게 교회에 절실히 필요하다.” -각 시대의 대쟁투, 9, 10.

나. 1260년 동안의 억압과 박해 속에서 교회가 겪은 경험을 설명하라. 계 12:6, 14.

다. 용이 신실한 자들을 대적하기 위해 사용하려 했던 인간 대리자들의 공격을 막아낸 도움은 무엇이었는가? 계 12:15, 16.

“모든 사람이 자기 수고의 대가를 누리고 자기 양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땅에 대한 소식이 유럽 여러 나라에 퍼지자 수많은 사람들이 신대륙으로 몰려들었다.” -각 시대의 대쟁투, 296.

가. 용의 분노가 절정에 달했을 때, 신실한 자들은 어떻게 묘사되는가? 계 12:17.

“계시록 저자는 마지막 시대를 내다보며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계 12:17)고 선언했다. 오늘날 이 땅에 살고있는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과거 여러 시대를 통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참 교회를 박해하게 했던 동일한 영이 장차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을 향해 유사한 행로를 추구하도록 인도할 것이다. 지금도 이 마지막 대쟁투를 위한 준비가 진행 중이다.” -선지자와 왕, 605.

나. 남은 자손의 특징은 마지막 시대의 교회를 어떻게 묘사하는가? 계 14:12; 19:10.

“남은 교회는 하나님의 율법을 옹호하고 예언의 은사를 가질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과 예언의 신을 가진 자들은 언제나 참된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해 왔으며, 그 시험은 대개 현재의 나타나는 현상들을 통해 주어진다.” -로마린다 기별, 33.

“남은 교회는 큰 시련과 고난을 겪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용과 그의 군대의 분노를 느끼게 될 것이다. 사단은 세상을 자기 백성으로 여기고 배교한 교회들을 지배해 왔다. 그러나 그의 패권에 저항하는 작은 무리가 여기에 있다.” -교회증언 9권, 231.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이 계명을 전하는 자들에 대하여 증오심을 품고 자 하는 결심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을 대항하는 일에 온 힘을 쏟고 있는 용의 편에서 가장 강력한 전쟁으로 몰아간다.” -교회증언 8권, 117.

복습과 생각할 문제

일몰시각 19:45

5월 29일(여섯째 날)

1. 성경에서 교회가 여자로 상징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2. 하나님의 아들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감수하신 위험을 설명하라.
3. 사단이 하늘에서 완전히 쫓겨난 것은 언제인가?
4. 용이 교회에 대해 분노한 이유를 설명하라.
5. 남은 자손을 식별할 때 주목해야 할 특징은 무엇인가?

첫째 안식일 연금

2026년 6월 6일 안식일



체코 프라하의 교회 건축을 위한 첫째 안식일 연금

체코는 유럽의 중심부에 위치한 국가로 독일, 폴란드,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이 나라 안에는 그림 같은 마을과 웅장한 성곽, 그리고 존 후스(1369~1415)가 위대한 개혁을 시작한 풍부한 문화적, 영적 유산을 자랑하는 역사적인 지역인 보헤미아가 자리 잡고 있다. 오늘날 체코는 약 1,090만 명의 인구를 가진 현대적인 세속 국가이며, 그중 140만 명 이상이 수도 프라하에 거주하고 있다.

프라하는 역사적, 문화적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미와 희망과 마음의 평화를 찾고 있다. 주민 중 47.8%는 무신론자로 간주되며, 11.7%는 기독교 신자(이 중 9.3%는 가톨릭, 2.4%는 기타 기독교 교파)로 밝혀졌으며, 10.8%는 기타 종교를 믿는다고 응답했다. 이 도시에서 재림교회 개혁 운동의 활동은 2014년 5월, 단 세 사람이 첫 모임을 가지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2020년 8월, 한 목사와 그의 가족이 이곳에 파송되어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구원의 현대 진리 기별을 전하기 시작했다.

현재 프라하 교회는 30명의 교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심을 갖고 침례를 준비 중인 사람들을 포함하면 약 70명 정도이다. 예배는 현재 임대 건물에서 드리고 있지만, 교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믿음을 굳건히 하고 주변 사람들과 진리의 빛을 나눌 수 있는 교회를 구입하거나 건축할 수 있는 기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집은 그분의 품성과 위엄에 걸맞는 것이어야 한다.” -교회 증언 5권, 268.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복된 기회를 갖게 되었다. 여러분의 연금은 영원을 위한 투자이며, 영혼 구원과 유럽의 중심부에 있는 교회를 강하게 하는 투자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 기도해 주고, 이 사업을 아낌없이 후원해 주며, 이 필요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 주기 바란다. 이 사업에 사랑으로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께서 축복하시기를 바란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살전 1:2).

-프라하에서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로부터

짐승과 그의 표

기억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계 13:16)

참조할 연구 교재: 각 시대의 대쟁투, 439~450.

“새끼양과 같은 뿔과 용처럼 말하는 소리는 이 표상하는 나라가 공언하는 바와 실제적 행동이 놀라울 만큼 모순됨을 보여준다.” -각 시대의 대쟁투, 442.

1. 복합적인 짐승

5월 31일(첫째 날)

가. 요한은 요한계시록 13:1[상단]에서 무엇을 보았으며, 단 7:3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나. 이 짐승의 외형적 특징 중 일부가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네 짐승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살펴봄으로써 무엇을 알 수 있는가? 계 13:2; 단 7:4~6.

“[다니엘] 13장(1~10절)에는 또 다른 짐승 ‘표범과 같은’ 짐승이 묘사되어 있는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고 한다. 대부분의 개신교인들이 믿는 바와 같이, 이 상징은 고대 로마 제국이 한때 가졌던 권력과 보좌와 권위를 계승한 교황권을 나타낸다. 표범과 같은 짐승에 대해 이렇게 선언한다.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람된 말하는 입을 받고 ...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훼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훼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리라. 이 예언은 다니엘 7장의 작은 뿔에 대한 묘사와 거의 동일하며, 의심할 여지 없이 교황권을 가리킨다.’ -각 시대의 대쟁투, 439.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 교회와 국가를 지배하는 권력은 수 세기 동안 교황권을 매개로 사단에 의해 통제되어 왔다.” -각 시대의 대쟁투, 268, 269.

가. 짐승의 정체는 그 지배 시기를 통해 어떻게 확인되는가? 계 13:5; 단 7:25.

“또 마흔 두 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그리고 선지자는 또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라고 말한다. 또 다시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라’고 하였다. 마흔 두 달은 다니엘 7장에 나오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곧 삼 년 반, 또는 1260일과 같은 기간으로서 그것은 교황권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 기간이다. 이 시기는… 서기 538년 교황권의 확립과 함께 시작되어 1798년에 끝났다. 그때 교황이 프랑스군에 포로로 잡히면서 교황권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고,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라는 예언이 성취되었다.” -각 시대의 대쟁투, 439.

나. 표범과 같은 짐승의 지배력은 어떻게 약화될 것인가? 계 13:3[상단], 10.

다. 그 짐승은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 계 13:6~8.

“한때 로마의 지배권을 인정했던 모든 나라들에 미치는 로마의 영향력은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예언은 로마의 그 세력이 다시 회복될 것을 예고한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계 13:3).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것은 1798년 교황권의 몰락을 가리킨다. 선지자는 그 후에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더라고 말한다. 바울은 ‘불법한 자’(살후 2:8)가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한다(살후 2:3~8). 그는 세상의 마지막 때까지 기만하는 일을 계속할 것이다. 요한계시록의 저자도 교황권을 언급하며 ‘죽임을 당한 어린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녹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계 13:8)고 말한다. 구대륙 신대륙 모두에서 교황권은 오로지 로마 교회의 권위로 세워진 일요일(주일) 제도에 대한 존경을 통하여 숭배를 받게 될 것이다.” -각 시대의 대쟁투, 579.

가. 교황권이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을 때, 어떤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하였는가?
요한계시록 13장 11절을 보라.

“새끼 양 같이 두 뿔을 가진 짐승이 ‘땅에서 올라’ 오는 것이 보였다. 자기 스스로를 세우기 위해 다른 세력을 무너뜨리는 대신, 이로써 상징되는 나라는 이전에 점령된 일이 없는 지역에서 일어나서 점진적이고 평화롭게 성장한 나라이여야 한다. 그러므로 이 짐승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는 격동하는 바다와 같은 구대륙의 혼잡하고 투쟁하는 민족들 가운데서 일어날 수 없다. 이 나라는 신대륙에서 찾아야 한다.

1798년에 신대륙에서 어떤 나라가 세력을 키워 강대국으로 부상하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었는가? 이 표상을 적용하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 예언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나라는 오직 하나뿐이며, 그것은 분명히 미국을 가리킨다. 역사가와 평론가들은 이 나라의 기원과 성장을 묘사할 때 무의식적으로 성서 저자의 사상과 그의 동일한 단어를 되풀이해서 사용하였다. 이 짐승은 ‘땅에서 올라온’ 것으로 되어있는데, 해석자들에 따르면 여기서 ‘올라온다’로 번역된 단어는 문자 그대로 ‘식물이 자라나거나 움터올라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 나라는 이전에 사람이 살지 않던 지역에서 일어나야만 한다. ...

‘새끼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그 두 뿔 가진 새끼 양과 같은 짐승은 어리고 순진하고 온순함을 나타내며, 선지자가 ‘올라’ 온다고 말한 그대로 1798년에 나타난 미국이라는 나라의 성격을 적절히 묘사하고 있다. 왕실의 압제와 신부들의 편협함으로부터 피난처를 찾아 미국으로 처음 망명한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정치와 종교적 자유라는 넓은 토대 위에 정부를 세우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많았다. 그들의 견해는 독립선언문에 반영되어,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 생명과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는데 남에게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다’는 위대한 진리를 명시했다. 또한 헌법은 국민에게 자치권을 보장하며, 국민 투표로 선출된 대표자들이 법률을 제정하고 집행하도록 규정하였다. 종교적 신앙의 자유도 인정되어 모든 사람은 양심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게 되었다. 공화 정체와 개신교는 국가의 기본 원칙이 되었다. 이러한 원칙들이 바로 미국의 힘과 번영의 비결이다. 모든 그리스도교국에서 핍박과 억압받던 사람들이 동경과 희망을 가지고 이 나라로 이주하여 왔다. 수백만 명이 이 나라에 상륙하여 미국은 지상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중 하나로 부상했다.” -각 시대의 대쟁투, 440, 441.

가. 새끼 양 같은 짐승의 강요에 의해 어떤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는가? 계 13:12, 16.

“상징 가운데 새끼 양 같은 뿔과 용처럼 말하는 소리는 그 표상하는 나라가 공언하는 바와 실제적 행동이 놀라울 만큼 모순됨을 보여준다. 이 나라가 ‘말한다’는 것은 입법 및 사법상의 권위의 행사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행위를 통하여 이 나라가 그 정책의 기초로 내세웠던 자유와 평화의 원칙들이 거짓이었음을 드러낼 것이다. ‘용처럼 말’하고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행사한다는 예언은 용과 표범 같은 짐승으로 표상되는 나라들이 보여준 편협함과 박해의 정신을 드러낼 것을 명백히 예언하고 있다. 또한 두 뿔 가진 짐승이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라’고 한 말은 이 나라의 권위가 교황권에 대해 경의를 표하는 어떤 의식을 강요하는 데 행사될 것임을 나타낸다.

이러한 행동은 이 정부의 원칙, 즉 자유 제도의 정신과 독립선언문의 직접적이고 엄숙한 선언과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 되는 것이다. 미국의 건국자들은 교회가 세속적 권력을 행사함으로써 필연적으로 초래되는 편협과 박해를 막기 위해 현명하게 노력하였다. 그 헌법은 ‘의회는 종교의 설립을 지지하거나 그 자유로운 행사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 내 공직에 임명되기 위한 자격 요건으로 종교적 조건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가의 자유를 보호하는 이러한 안전장치를 명백히 위반하는 경우에만 시민 권력이 종교적 의식을 강제할 수 있다.” - 각 시대의 대쟁투, 442.

나.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것이 어떻게 미국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인가? 잠 14:34; 시 119:126.

“방탕한 모든 세대는 진노의 날을 위해 진노를 쌓아 왔다. 때가 이르러 죄악이 가득차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기이하신 일을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한계에 달하게 한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는 자비가 섞이지 않은 채로 너무나 현저하고 강력하게 부어질 것이며, 땅 그 자체가 황폐해질 것이다. 사단의 계략에 따라 땅의 통치자들이 죄악의 사람 편에 서게 되는 국가적 배교의 때, 바로 그때 죄악의 잔이 가득 차게 되며, 국가적인 배도는 국가적인 파멸의 신호가 된다.” - 가려뽑은 기별 2권, 373.

가. 로마 권세의 표는 무엇인가? 단 7:25.

“카톨릭 교회의 권위의 표로서 그 교회의 저술가들은, ‘개신교도들이 인정하는 바 안식일을 일요일로 변경한 그 사실을 인용한다. 왜냐하면 일요일을 지킴으로써 그들은 교회가 축일을 제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죄로 규정할 권한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헨리 터버빌, 기독교 교리 요약, 58]. 그렇다면 안식일 변경은 로마 교회의 권위의 표, 즉 ‘짐승의 표’가 아닌가? … 일요일 준수를 법으로 강요하고 세상이 참된 안식일의 의무에 대해 깨닫게 될 때, 누구든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로마교의 권위에 다름이 없는 명령을 따르는 자는 이로써 하나님보다 교황권을 더 높이게 될 것이다.” -각 시대의 대쟁투, 448, 449.

나. 대조적인 두 운동의 절정을 설명하라. 하나는 영혼들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고 다른 하나는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것이다. 계 13:13~15; 16:13, 14; 마 24:14, 24.

“교회는 국가의 강한 세력에 호소하게 되고, 이 일에 있어서 가톨릭교도와 개신교도는 연합하게 된다. 일요일을 강요하는 운동이 더욱 대담해지고 단호해짐에 따라, 법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적용될 것이다. 그들은 벌금과 투옥의 위협을 받을 것이며, 어떤 이들은 신앙을 포기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영향력 있는 직책이나 다른 보상과 혜택을 제안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확고한 대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라’는 말이 될 것이다. 이는 루터가 비슷한 상황에서 했던 호소와 같은 것이다. 법정에서 서게 된 사람들은 진리를 강력하게 옹호하며, 그들의 말을 듣는 사람들 중 일부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기로 결심하게 될 것이다. 이로써 이 진리를 전혀 알지 못했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비취질 것이다.” -각 시대의 대쟁투, 607.

1.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짐승들의 어떤 특징들이 로마로 이어졌는가?
2. 교황권 1260년 통치 기간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검토하라.
3. 치명적인 상처가 짐승의 죽음으로 이어지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4. 새끼 양의 뿔은 미국의 어떤 독특한 특징을 묘사하는가?
5. 오늘날 일요일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이미 짐승의 표를 받은 것인가?

세 천사들

기억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계 14:12)

참조할 연구 교재: 초기문집, 232~261.

“나는 세 단계로 되어 있는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보았다. 나와 함께한 천사가 말했다. ‘이 기별들에서 일점일획이라도 빼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 기별들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초기문집, 258.

1. 요한계시록의 천사들

6월 7일(첫째 날)

가. 천사들로 나타난 다양한 유형의 사자들을 비교하고 대조해 보라. 계 1:20; 10:1, 5; 11:1; 22:8.

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땅 위의 모든 사람에게 기별을 보내시는가? 롬 10:13~15.

“하나님께서서는 사람들 가운데 그분을 대표하는 자로 타락한 적이 없는 천사들을 택하지 않으시고, 구원하고자 하시는 사람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을 택하신다. … 그리고 남녀들에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엡 3:8)하심을 알리라는 거룩한 사명을 맡기셨다.” -사도행적, 134.

“우리는 천사들과 함께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는 동역자가 되어야 한다. … 이는 사람은 사람과 소통하는 통로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온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헌신할 때, 천사들은 우리의 음성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음을 기뻐한다.” -시대의 소망, 297.

다. 요한계시록 14:6~12에 나오는 천사들은 누구를 상징하며, 그들의 사명은 무엇인가? 마 28:19, 20; 행 1:8.

“천사들은 공중을 날아다니며 세상에 경고의 기별을 선포하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 아무도 이 천사들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데, 이는 천사들이 하늘나라의 우주와 조화롭게 일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가려뽑은 기별 2권, 387.

가. 첫째 천사는 누구에게 기별을 전하는가? 계 14:6.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선포하는 가운데 큰 종교적 각성이 일어날 것임을 요한 계시록 14장의 첫째 천사의 기별에 예언되어 있다. … 천사가 공중을 날며 ‘큰 음성으로’ 경고하되,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파하는 것은 이 운동의 신속성과 세계적인 범위를 보여준다.” -각 시대의 대쟁투, 355.

나. 첫째 천사는 어떻게 하나님을 창조주로 주목하게 했는가? 계 14:7; 창 1:1; 엡 3:9.

다. 재림 운동이 첫째 천사의 기별과 심판을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설교에 어떻게 적용시켰는지 생각해 보라. 단 7:26, 27; 8:14; 행 17:30, 31.

“윌리엄 밀러와 그의 동역자들에게 미국에서 경고의 기별을 전파하라는 사명이 주어졌다. 그리하여 미국은 위대한 재림 운동의 중심지가 되었다. 이곳에서 첫째 천사의 기별에 대한 예언이 가장 직접적으로 성취되었다. 밀러와 그의 동역자들의 저술은 먼 나라까지 전해졌다. 전 세계 어디에서나 선교사들이 나아간 곳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하였다는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라는 영원한 복음의 기별이 널리 퍼져 나갔다.

1844년 봄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키는 듯한 예언의 증거는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감명을 주었다. 이 기별이 각 주(州)에서 저 주로 전해짐에 따라 가는 곳마다 큰 흥미를 일으켰다. 많은 사람들이 예언적 기간에 대한 논증(論證)이 정확하다고 확신하여, 자신의 교만한 견해들을 버리고 기쁜 마음으로 진리를 받아들였다. 어떤 목사들은 교파적인 견해와 감정을 버리고, 봉급과 교회를 떠나 예수님의 재림을 전파하는 일에 연합하였다. 그러나 이 기별을 받아들여려는 목회자는 비교적 적었으므로 이 사명은 대부분 겸손한 평신도들에게 맡겨졌다. … 경건하지 못한 교회와 악으로 가득 찬 세상의 형편은 참된 파수꾼들의 짐을 무겁게 했고, 그들은 사람들을 회개로 이끌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 기꺼이 수고와 궁핍과 고난을 견뎠다. 사단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꾸준히 전진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재림의 진리를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각 시대의 대쟁투, 368.

가. 둘째 천사는 그리스도 교회의 영적 상태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가? 계 14:8.

“그 포도주는 무엇인가? 바벨론의 거짓 교리들이다. 그것은 넷째 계명의 안식일 대신에 세상에 거짓 안식일을 주었으며 사단이 에덴동산에서 하와에게 처음 말했던 거짓말, 곧 영혼의 자연적인 불멸설을 되풀이했다. 바벨론은 이와 유사한 많은 오류들을 널리 퍼뜨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마 15:9)쳤다.” -가려뽑은 기별 2권, 118.

“바벨론은 유독한 교리, 곧 오류의 포도주를 퍼뜨려 왔다. 이 오류의 포도주는 영혼의 자연적 불멸성, 악인의 영원한 고통,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기 전 그리스도의 선재성에 대한 부인,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성별하신 날보다 주일 중 첫날을 높이는 것과 같은 거짓 교리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오류와 유사한 오류들이 여러 교회들에 의해 세상에 전파되고 있으며, 이로써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계 14:8)라는 성경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 -목사와 복음교역자에게 보내는 증언, 61, 62.

나. 재림 운동의 신자들이 2300주야의 끝이 진정으로 밝혀진 것과 그 기별을 거절한 자들과 분리하라는 부르심에 대한 첫 번째 실망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설명하라. 합 2:3; 마 25:6.

“1844년 여름, 2300주야가 끝날 것으로 처음 생각했던 때로부터 나중에 그 날이 연장된 것으로 깨닫게 된 그해 가을 사이에, 성경 말씀 그대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기별이 선포되었다.

이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은 2300주야의 기산점(起算點)이 되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아닥사스다 왕의 칙령이 이전에 믿었던 것처럼 연초가 아니라 기원전 457년 가을에 발효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기원전 457년 가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2300주야는 1844년 가을에 마치게 된다.” -각 시대의 대쟁투, 398, 399.

“교회들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함으로써, 그들은 하늘로부터 온 빛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다. 그들은 자기 능력을 의지하고 첫째 기별을 거절함으로써 둘째 천사의 기별 가운데 있는 빛을 볼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억압받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은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기별을 받아들이고 교회들을 떠났다.” -초기문집, 237.

가. 셋째 천사는 어떤 놀라운 경고를 전하는가? 계 14:9~11.

“지금까지 인류에게 주어진 가장 두려운 경고가 셋째 천사의 기별에 포함되어 있다. 그것은 자비가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는 무서운 죄임에 틀림없다. 사람들은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해 모르고 있어서 안 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세상에 이 죄에 대한 경고가 주어져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왜 형벌을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심판을 피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 이 예언에는 공중에 날아가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선포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온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 -각 시대의 대쟁투, 449, 450.

나. 셋째 천사의 기별이 전해지는 시대에 성도들은 어떻게 구별되는가? 계 14:12.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은 특히 넷째 계명을 준수하는 것으로 구별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계명은 하나님의 창조 능력의 표징이며, 사람이 그분께 경의와 존경을 드러야 한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 이 쟁투의 결과로 모든 그리스도교회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숭배하고 그 표를 받는 자들로 크게 두 부류로 나뉘게 될 것이다. 비록 교회와 국가가 힘을 연합하여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계 13:16)로 모든 사람에게 짐승의 표를 받도록 강요할 것이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 표를 받지 않을 것이다.” -교회증언 9권, 16, 17.

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가? 계 7:2, 3.

“1848년 11월, 매사추세츠주 도체스터에서 개최된 집회에서 나는 인치는 기별의 선포와 우리 앞길에 비추는 빛을 전파해야 할 형제들의 의무에 대한 이상을 보았다.

이상에서 깨어난 후, 나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당신에게 전할 기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작은 간행물을 인쇄해서 사람들에게 보내야 합니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되, 사람들이 읽으면 인쇄할 수 있는 자금을 보내줄 것이며, 그러면 처음부터 성공할 것입니다. 이 작은 시작이 마치 온 세상을 비추는 빛줄기와 같이 뒤덮을 것을 나는 보았습니다.’” -자서전, 125.

5. 기별의 절정

6월 11일(다섯째 날)

가. 셋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는 동안 믿음 안에서 잠든 자들에게 선포된 축복은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계 14:13; 단 12:2.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때는 한밤중이었다. 악인들이 성도들을 둘러싸고 조롱하고 있을 때, 갑자기 태양이 나타나 환희 비추고 달은 그 자리에 멈춰 섰다. 악인들은 놀라서 그 광경을 바라보았고, 성도들은 큰 기쁨으로 그들의 구원의 징조를 바라보았다. 표적과 기사가 연이어 일어났다. 모든 만물이 본궤도를 벗어난 것처럼 보였다. 냇물이 흐르기를 멈추고, 떡장구름들이 일어나 서로 부딪쳤다. 그러나 한곳에는 영광이 가득한 맑은 공간이 있었는데, 거기로부터 많은 물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나오매 하늘과 땅이 흔들렸다. 큰 지진이 일어났으며 무덤들이 열리고,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안식일을 지키다가 죽었던 자들이 영광스럽게 티끌 가운데서 일어나 하나님께서 그분의 율법을 지키는 자들과 맺으실 평화의 언약을 듣기 위해 일어났다.” -초기문집, 285.

나. 세 천사의 기별이 끝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계 14:14~16; 막 4:26~29.

“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분주히 오가는 것을 보았다. 서기관의 먹통을 옆구리에 찬 한 천사가 지구에서 돌아와 예수님께 자기의 일이 다 끝났음을 보고하고 성도들의 수가 차서 인치는 사업이 마쳤음을 보고했다. 또 내가 보니 예수님께서 십계명이 담긴 법궤 앞에서 봉사하시다가 향로를 던지시고 손을 드시며 큰 소리로 ‘다 이루었다’고 하셨다.” -초기문집, 279.

복습과 생각할 문제

일몰시각 19:54

6월 12일(여섯째 날)

1. 하나님께서는 왜 복음 전파를 인간에게 맡기셨는가?
2. 첫째 천사의 기별은 어떻게 전 세계에 전해졌는가?
3. 둘째 천사의 기별을 주신 이유를 설명하라.
4. 셋째 천사의 기별은 어떤 차이점을 강조하는가?
5. 세 천사의 기별이 끝난 후에는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인가?

마지막 부르심

기억절: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 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계 18:1)

참조할 연구 교재: 각 시대의 대쟁투, 603~612.

“위대한 복음 사업은 시작할 때 나타났던 하나님의 권능보다 덜한 것으로 마쳐질 수 없다.”
-각 시대의 대쟁투, 611.

1. 큰 바벨론

6월 14일(첫째 날)

가. 요한이 본 큰 바벨론으로 일컫는 교회의 극적인 모습을 설명하라. 계 17:1~6.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여자(바벨론)는 …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 이마에는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는 이름이 쓰여 있었다. … 수 세기 동안 그리스도국의 왕들을 전제적으로 지배해 온 세력은 로마 교황청이다. 자주 빛과 붉은 빛이며, 금과 보석과 진주는 오만한 로마 교황청이 과시한 화려함과 왕권에 영향을 받은 일반 왕들보다 뛰어난 위엄과 화려함을 생생하게 묘사한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그토록 잔혹하게 박해해 온 교회만큼 진실로 ‘성도들의 … 피에 취한지라’고 선언될 수 있는 세력은 없다. 바벨론은 또한 ‘땅의 임금들’과 불법적인 관계를 맺은 죄로 고발당했다. 유대교가 주님을 떠나 이교도들로 더불어 동맹을 맺음으로 음녀가 된 것과 마찬가지로, 로마교도 세속적 권력의 도움을 받기 위해 스스로 타락함으로 동일한 정죄를 받는다.” -각 시대의 대쟁투, 382.

나. 이 권세는 어떻게 끝날 것인가? 계 17:15~18.

가.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 나오는 천사의 출현에 대해 설명하라.

“세 천사의 기별은 하나로 결합되어 세상에 삼중의 빛을 비추게 된다. 요한은 계시 중에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더라’(계 18:2~5 인용)고 말한다. 이것은 세상에 마지막 삼중의 기별을 전하는 것을 나타낸다.” -성경주석[화이트주석] 7권, 985.

“교회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의 보고이며, 교회를 통해 마침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위자들’(엡 3:10, 새번역)에게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완전하게 드러날 것이다.” -사도행적, 9.

나. 천사의 영광은 무엇을 의미하며, 어떻게 나타나는가? 시 29:1, 2; 요 17:22, 23.

“품성 형성이 소홀해지고, 영혼의 단장이 부족하며, 경건의 단순성이 멸시될 때, 교만과 과시욕이 웅장한 교회 건물과 화려한 장식, 위엄 있는 의식들을 요구하게 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외적인 우세함 때문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는 진실한 경건 때문에 교회를 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얼마나 성장했는지, 영적인 경험에서 진보한 정도에 따라 교회를 평가하신다.” -선지자와 왕, 565, 566.

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광을 어떻게 보여주셨는가? 출 33:18, 19; 34:57.

“하나님의 속성의 영광은 그분의 품성에 드러난다. 성경의 모든 페이지는 그분의 빛으로 빛난다. 그리스도의 의는 순백의 진주와 같아서 흠도 없고 점도 없다. 인간의 어떤 노력도 하나님의 위대하고 귀한 선물을 더 좋게 만들 수 없다. 그것은 흠이 없다.” -실물교훈, 115.

“이 품성은 그리스도의 생애에서 드러났다. 그분께서는 그분의 모본으로 육신의 죄를 정죄하시기 위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취하셨다. 그분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품성을 바라보셨으며, 끊임없이 이 품성을 세상에 드러내 보이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제자들이 그들의 삶에서 이와 같은 품성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322.

가. 천사는 바벨론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말하는가? 계 18:2.

“큰 권능과 영광이 그 천사에게 주어졌으며 그가 내려올 때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해졌다. 그 천사를 따르는 빛은 그가 크고 힘센 소리로 … 둘째 천사가 전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기별이 반복 되었는데, 1844년 이후 교회에 들어온 타락상을 재차 지적하면서 반복되었다.” - 초기문집, 277.

나. 둘째 천사의 기별이 처음 선포된 이후 바벨론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계 18:3.

“요한계시록 14장의 둘째 천사의 기별은 1844년 여름에 처음 전파되었으며, 당시에는 그 심판의 경고가 가장 널리 전파되고 가장 보편적으로 거부되었으며, 교회의 타락이 가장 급속하게 진행되었던 미국 교회에 더욱 직접적으로 적용되었다. 그러나 둘째 천사의 기별은 1844년에 완전히 성취되지 못했다. 교회들은 재림 기별의 빛을 거절한 결과로 도덕적 타락을 경험하였으나, 그 타락은 극에 달하진 않았다. 이 시대를 위한 특별한 진리를 계속 거절해 온 교회들은 점점 더 깊은 타락의 길로 빠져들었다. 그러나 아직 ‘바벨론이 … 무너졌’다고 말할 수는 없다. 바벨론은 아직 모든 나라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만들지는 않았다. 세상에 타협하는 정신과 이 시대를 위한 시험하는 진리에 대한 무관심은 여전히 존재하며, 그리스도교계의 모든 나라에 있는 개신교 교회들 안에서 점점 더 세력을 확장해 왔다. 그리고 이러한 교회들도 둘째 천사의 엄숙하고 두려운 심판의 선고에 포함된다. 그러나 배교의 일은 아직 절정에 이르지 않았다.

성경은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사단이 ‘모든 거짓 권능과 징조와 이적과 불의한 모든 속임으로’ 활동할 것이며,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 할 자들은 ‘미혹하는 마음이 발동하여’ ‘거짓 것을 믿게’(살후 2:9~11) 될 것이라고 선언한다. 이러한 상태에 이르러 모든 교회가 세상과 연합하여 그리스도계 전체에 걸쳐 완전히 성취될 때까지는 바벨론의 멸망이 완성되지 않을 것이다. 변화는 점진적인 것이며, 요한계시록 14:8의 완전한 성취는 아직 미래에 속한 일이다.” - 각 시대의 대쟁투, 389, 390.

가. 그렇다면 바벨론에 남아 있는 자들은 어떤 긴급한 부르심을 듣게 될 것인가? 계 18:4.

“요한계시록 18장은 요한계시록 14장 6~12절의 삼중 경고를 거절한 결과로 교회가 둘째 천사가 예언한 상태에 빠졌을 때, 아직도 바벨론 가운데 남아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그 가운데서 나오라는 초청이 주어질 시기를 가리킨다. 이 기별은 세상에 주어지는 최후의 기별이며, 이로써 그 사업이 마쳐질 것이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살후 2:12)들이 속임을 받아 거짓을 믿도록 버려질 때, 진리의 빛은 그것을 받아들이고자 마음을 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쳐질 것이며, 바벨론에 남아 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은 ‘내 백성이 그곳에서 나오라’(계 18:4)는 부르심에 응답할 것이다.” -각 시대의 대쟁투, 390.

나.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부름을 받은 “내 백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요 10:16.

“바벨론을 구성하고 있는 교회들에 존재하는 영적 암흑과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참으로 따르는 큰 무리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들 중에는 이 시대를 위한 특별한 진리를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또한 적지 않은 이들이 현재 상태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밝은 빛을 갈망하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이 속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찾으려고 헛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단체들이 진리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세상과 더욱 밀접하게 연합할수록, 두 계층 사이의 차이는 더욱 벌어져 결국 완전히 분리될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자들이 ‘괘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과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때가 올 것이다.” -각 시대의 대쟁투, 390.

다.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부르심이 그토록 긴급한 이유는 무엇인가? 계 18:5~8.

“기다리던 자들에게 비추어진 빛은 세상 곳곳에 비쳐졌으며, 교회 안에 있던 자들 중 어느 정도 빛을 받았으나 세 천사의 기별을 듣지 못하고 거절했던 자들은 부르심에 순종하여 타락한 교회를 떠났다.” -초기문집, 278.

가. 분명하고 확실한 경고의 기별이 중요한 이유를 설명하라. 사 58:1; 고전 14:7, 8.

“요한계시록 18장은 진리를 절제된 표현이 아닌 담대함과 능력으로 제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다. …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할 때 너무 많은 우회적 표현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복음전도, 230.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과수꾼들이 일어나 한목소리로 확고한 기별을 전하며 나팔을 분명히 불어 모든 백성이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그 위대한 사업에서 자기의 역할을 수행하기를 바라셨다. 그러면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또 다른 천사의 강하고 분명한 빛이 온 땅을 그의 영광으로 가득 채웠을 것이다. 우리는 수년이나 뒤처져 있다. 하나님께서 미네아폴리스 집회에서 타오르는 등불처럼 나아가도록 의도하신 바로 그 기별이 전해지는 것을 눈이 멀어 방해했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낮추고, 자신들의 마음의 눈먼 상태와 굳은 마음이 어떻게 그 사업을 방해해 왔는지 깨달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엘렌.G. 화이트 1888년 자료집, 1070.

나. 우리 각자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새겨야 할 예수님의 간절한 호소는 무엇인가?
요 12:35, 36.

“또 다른 천사가 셋째 천사의 소리와 음성을 합하니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더라. 그 빛이 점점 밝아져 온 땅의 모든 민족에게 비추었다. 그 빛은 타오르는 빛과 같이 나아갈 것이다. 큰 권능이 동반하여 그 황금빛 광선이 온 땅의 모든 방언과 모든 백성과 모든 나라에 비칠 것이다. 내가 묻겠다. 그대는 이 일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영원을 위하여 건축하고 있는가? 이 천사는 세상에 이 기별을 전할 백성을 상징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대는 그 백성 가운데 있는가?” -리뷰 앤 헤럴드, 1885.8.18.

1. 로마가 음녀의 어머니 바벨론이라는 묘사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설명하라.
2. 다른 천사가 드러낼 하나님의 참된 영광은 무엇인가?
3. 둘째 천사의 기별이 반복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4. 오늘날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들은 대부분 어디에 있는가?
5. 나는 오늘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업에 방해가 되기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예언된 종말

기억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계 21:5)

참조할 연구 교재: 초기문집, 279~295.

“죄의 저주 아래 있는 이 작은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창조물 가운데 하나의 어두운 오점(汚點)이지만, 하나님의 우주 만물 가운데 다른 모든 세계들보다 더 큰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시대의 소망, 26.

1. 마지막 칠 재앙

6월 21일(첫째 날)

가. 땅에 쏟아질 하나님의 심판에 관하여 무엇이 계시되었는가? 계 15:1; 16장.

“나는 마지막 칠 재앙이 곧 피난처를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쏟아질 것을 보았으나 세상 사람들은 그 재앙들을 마치 떨어지려는 물방울 정도로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때 나는 하나님의 진노라는 마지막 칠 재앙의 두려운 광경을 볼 수 있도록 허락되었다. 나는 그분의 진노하심이 몹시 무섭고 두려운 것임을 보았다. 만일 그분께서 손을 뺐으시거나 진노하여 손을 치켜드신다면, 세상 사람들은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되거나, 불치의 종기와 시들게 하는 전염병으로 고통받게 될 것이며, 구원받지 못하고 결국 그 재앙들로 멸망당할 것임을 보았다.” -초기문집, 64.

나. 같은 장면이 예레미야 25:30~33과 요한계시록 19:17~21에서는 어떻게 다르게 묘사되어 있는가?

“악인들은 은혜의 기간에 주어진 기회를 잃어버렸으며 계속적으로 거절당한 하나님의 영은 마침내 거두어졌다.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받지 못하는 그들은 악한 자로부터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다. 그때 사단은 땅의 거민들을 최후의 큰 환난 가운데 빠뜨릴 것이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간의 걱정의 거친 바람을 억제하기를 그치면, 모든 분쟁의 요소들이 풀려날 것이다. 온 세상은 옛 예루살렘에 닥쳤던 것보다 더 끔찍한 파멸에 휩싸일 것이다.” -각 시대의 대쟁투, 614.

가.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계 1:7; 6:15~17.

“곧 우리의 눈은 동쪽으로 향하게 되었는데 손바닥 반만 한 작은 검은 구름이 나타났는데, 우리는 모두 그것이 인자의 징조임을 알았다. 우리는 모두 엄숙한 침묵 속에 그 구름을 바라보았는데 구름은 점점 가까워지면서 환하여지고, 더욱 영광스러워지더니 마침내 거대한 흰 구름이 되었다. 구름의 밑바닥은 불처럼 보였으며, 그 위에는 무지개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 주위에는 천만 천사들이 둘러서서 매우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그 위에 인자가 앉아 계셨다. 그의 머리카락은 희고 곱슬거렸으며 어깨에 드리워져 있었고,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이 씌워져 있었다. 그의 발은 불꽃 같았고, 오른손에는 예리한 낫을, 왼손에는 은 나팔을 들고 계셨다. 그의 눈은 불꽃 같아서 그의 자녀들을 두루 살피고 계셨다. 그때 모든 사람들의 얼굴은 창백해졌으며,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자들의 얼굴은 흙빛으로 변했다. 그때 우리는 모두 ‘누가 능히 설 수 있으리요? 나의 옷은 흠이 없는가?’라고 외쳤다. 그러자 천사들의 노래가 그치고 잠시 동안 무서운 침묵이 흘렀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순결한 자들은 능히 설 수 있을 것이다. 내 은혜가 너희에게 족하도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얼굴이 밝게 빛났으며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해졌다. 그러자 천사들은 더 높은 음조로 다시 노래를 불렀고, 구름은 한층 더 가까이 땅에 가까워졌다.” -초기문집, 15, 16.

나. 그렇다면 천사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마 24:31; 살전 4:16, 17.

“죄는 하나님의 형상을 손상시키고 거의 지워버렸으나, 그리스도께서는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시기 위해 오셨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켜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만드실 것이다. 한때 죄로 더럽혀져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고 죽을 수밖에 없고 썩어 없어질 몸이 완전하고 아름답고 죽지 않을 몸으로 변한다. ...

천사들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 어린아이들은 거룩한 천사들에 의해 어머니의 품에 안긴다. 사망으로 오랫동안 헤어졌던 친구들은 다시 만나 영원히 헤어지지 않고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함께 하나님의 도성으로 올라간다.” -각 시대의 대쟁투, 645.

다. 사단은 어디에 갇히게 될 것인가? 계 20:1, 2.

“이 곳이 사단과 그의 악한 천사들이 일천 년 동안 거할 곳이다. 사단은 지구에 갇히게 되어 결코 타락한 적이 없는 자들을 유혹하고 괴롭히기 위해 다른 세계에 접근할 수 없을 것이다.” -각 시대의 대쟁투, 659.

가. 사단이 결박된 천 년 동안 성도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계 20:4~6; 고전 6:2, 3.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사이의 일천 년 동안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진다. 사도 바울은 이 심판을 재림 이후에 일어날 사건으로 지적한다. ... 다니엘은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이 오셔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단 7:22)고 선언한다. 이때 의인들은 하나님께 왕과 제사장이 되어 다스린다. ... 바울이 ‘성도가 세상을 심판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냐’(고전 6:2)고 예언한 때가 바로 이때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악인들을 심판하여, 그들의 행위를 율법서인 성경에 비추어 그들이 육신으로 행한 일에 따라 모든 사건을 판결한다. 그리고 악인들이 받아야 할 형벌이 그들의 행위에 따라 정해지고, 사망책에 있는 그들이 이름 아래 기록된다.

사단과 악한 천사들도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에 의해 심판받는다. 바울은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냐’(고전 6:3)고 말한다. 그리고 유다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유 6)다고 선언한다.” -각 시대의 대쟁투, 660, 661.

나. 천년 심판의 끝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계 21:2; 20:7, 8.

“일천 년이 끝나면 두 번째 부활이 있을 것이다. 그때 악인들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 기록된 판결대로 형벌을 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계시자 요한은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 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계 20:5)고 말한다. 이사야는 악인들에 관하여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 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사 24:22)고 선언한다.” -각 시대의 대쟁투, 661.

다. 악인들의 최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계 20:9; 말 4:1.

“정결케 하는 불로써 악인들은 마침내 뿌리째 뽑힐 것이다. 사단은 뿌리요, 그의 추종자들은 가지이다. 율법의 모든 형벌이 집행되었고, 공의의 요구가 충족되었다. 하늘과 땅이 이를 바라보고 여호와와 의로우심을 선포다.” -각 시대의 대쟁투, 673.

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설명하라. 계 21:1, 5; 22:1, 2; 사 65:17.

“구원의 사업은 완성될 것이다.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하여질 것이다. 사단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로 이 땅이 구원받을 뿐 아니라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죄의 저주 아래 있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창조물 가운데 한 어두운 오점(汚點)이었던 이 작은 세계는 하나님의 우주 안에 있는 다른 모든 세계들보다 더 큰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인성으로 거하시던 곳, 영광의 왕께서 생활하시고 고난받으시고 돌아가셨던 바로 이 땅을 그분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실 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저희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그리하여 구원받은 자들이 영원무궁토록 주님의 빛 가운데 다니며, 말로 다 할 수 없는 선물, 임마누엘, 곧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주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시대의 소망, 26.

나. 새 땅에서는 무엇이 달라질 것인가? 사 65:21~25; 계 21:4.

“하늘에는 고통이 존재할 수 없다. 더 이상 눈물도, 장례 행렬도, 슬픔의 흔적도 없을 것이다. ...

하나님의 도성에는 ‘밤이 없’다. 아무도 휴식을 필요로 하거나 원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 데 지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항상 아침의 신선하고 상쾌함을 느끼고 어둠과는 거리가 멀 것이다.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취심이라’(계 22:5). 태양의 빛은 고통스러운 정도로 눈부시지 않으면서도 우리의 눈에 적당한 밝기의 빛으로 대신할 것이다.” -각 시대의 대쟁투, 676.

“성경은 구원받은 자들의 유업을 본향이라고 부른다(히 11:14~16 참조). 그곳에서 하늘의 목자께서는 당신의 양 무리를 생명수의 샘으로 인도하신다. 생명나무는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다. 수정같이 맑은 물이 영원히 흐르는 강들이 있고, 그 가에는 흔들리는 나무들이 주님께서 구원하신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길에 그 그림자를 드리운다. 넓게 펼쳐진 평야는 아름다운 언덕으로 둘러싸여 있고, 하나님의 산들은 높은 봉우리를 자랑한다. 그 평화로운 평원에서, 그 생명 강가에서 오랫동안 순례자요 방랑자였던 하나님의 백성은 마침내 안식처를 찾을 것이다.” -각 시대의 대쟁투, 675.

가. 예수님께서서는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읽는 독자들을 어떤 말씀으로 격려하고자 하셨는가? 계 22:7, 12~14.

“주님께서 친히 그분의 종에게 이 책에 포함된 비밀을 나타내셨고,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연구할 수 있도록 공개되기를 바라셨다. 이 책의 진리는 요한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해당된다. 이 예언에 묘사된 장면들 중 일부는 과거에 일어난 일이고, 일부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어떤 장면들은 어둠의 세력과 하늘의 왕 사이의 대쟁투의 종말을 보여주고, 어떤 장면들은 재창조된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들의 승리와 기쁨을 나타내고 있다.

누구도 계시록에 있는 모든 상징의 뜻을 설명할 수 없다고 해서 이 책에 내포된 진리의 뜻을 연구하는 것이 쓸모없다고 생각하지 말라. 요한에게 이 비밀들을 계시하신 분께서 진리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하늘의 것들을 미리 맛보게 해주실 것이다. 진리를 받아들일 마음이 열린 자들은 그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약속된 축복을 받을 것이다.” -사도행적, 584, 585.

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통해 영원한 생명과 평화를 찾으려 초대하시는가? 계 22:17; 사 55:1; 요 7:37, 38.

“목마른 영혼을 향한 그리스도의 외침은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명절 마지막 날 성전에서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보다 우리에게 더욱 큰 능력으로 호소하신다. 생명의 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열려 있다. 지치고 피곤한 자들에게 영생의 신선한 음료가 제공되어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여전히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외치고 계신다.” -시대의 소망, 454.

1. 재앙은 어떻게 세상 역사의 종말을 가져오는가?
2.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누가 설 수 있는가?
3. 일천년 동안의 심판의 목적을 설명하라.
4. 구원받은 자들의 궁극적인 거처는 어디인가?
5. 나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참여하기를 원하는가?

첫째 안식일 연금



4월 4일 안식일

이탈리아 선교 본부를 위한 연금

이탈리아의 영향력 있는 중심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욱 유용하게 확장할 때이다(4쪽 참조).



5월 2일 안식일

세계 선교를 위한 연금

어둠 속에 있는 소중한 영혼들은 오늘날 현대 진리가 절실히 필요하다. 우리는 그들에게 진리를 전할 수 있다(25쪽 참조).



6월 6일 안식일

체코 프라하의 교회 건축을 위한 연금

개혁으로 유명한 이 역사적인 도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자!(51쪽 참조).